『4단계 BK21사업』 미래인재 양성사업(인문사회 분야)
교육연구단 자체평가보고서

<table>
<tr><td>접수번호</td><td colspan="8">4199990314637</td></tr>
<tr><td>사업 분야</td><td>사회과학</td><td>신청분야</td><td colspan="2">사회/인류학</td><td>단위</td><td>지역</td><td>구분</td><td>교육연구단</td></tr>
<tr><td rowspan="3">학술연구분야
분류코드</td><td>구분</td><td colspan="2">관련분야</td><td colspan="2">관련분야</td><td colspan="2">관련분야</td><td></td></tr>
<tr><td>중분류</td><td>소분류</td><td>중분류</td><td>소분류</td><td>중분류</td><td>소분류</td><td></td></tr>
<tr><td>분류명</td><td>인류학</td><td>도시및산업인류학</td><td>인류학</td><td>기타인류학</td><td>역사학</td><td>고고학</td><td></td></tr>
<tr><td></td><td>비중(%)</td><td colspan="2">40%</td><td colspan="2">30%</td><td colspan="2">30%</td><td></td></tr>
<tr><td>교육연구
단명</td><td colspan="8">국문) 인류세 시대, 생물문화다양성 연구를 통한 지역위기 극복과 미래 구축 교육연구단</td></tr>
<tr><td></td><td colspan="8">영문) Expert-BCD (A Graduate Program for Resolving Local Crises and Shaping Futures by Studying Biocultural Diversity in the Anthropocene)</td></tr>
<tr><td rowspan="5">교육연구
단장</td><td>소 속</td><td colspan="7">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문화인류학과</td></tr>
<tr><td>직 위</td><td colspan="7">교수</td></tr>
<tr><td rowspan="2">성명</td><td>국문</td><td colspan="2">임 택</td><td>전화</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팩스</td><td colspan="3"></td></tr>
<tr><td>영문</td><td colspan="2">Yim taek</td><td>이동전화</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td><td>E-mail</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연차별
총 사업비
(백만원)</td><td>구분</td><td>1차년도
('20.9~'21.2)</td><td>2차년도
('21.3~'22.2)</td><td>3차년도
('22.3~'23.2)</td><td>4차년도
('23.3~'24.2)</td><td>5차년도
('24.3~'25.2)</td><td colspan="2"></td></tr>
<tr><td>국고지원금</td><td>220,535,000</td><td>441,070,000</td><td>441,549,000</td><td>563,633,000</td><td>395,558,000</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총 사업기간</td><td colspan="7">2020.9.1.-2027.8.31.(84개월)</td></tr>
<tr><td colspan="2">자체평가 대상기간</td><td colspan="7">2023.9.1.-2024.8.31.(12개월)</td></tr>
</table>

본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4단계 BK21』 사업 관련 법령, 귀 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체평가보고서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작성자	교육연구단장	임 택 (인)
확인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손 민 (인)

<자체평가 보고서 요약문>

중심어	인류세	지방 / 지역	생물문화다양성
	문화생태	역사생태경관	지역위기
	문화자원	지속가능성	미래 구축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달성정도	• 인류세 시대, 생물문화다양성 탐구를 통한 지역위기의 극복과 미래 구축 교육연구단의 목표는 지방을 인류세의 위기를 극복하는 토대로 생물문화다양성을 지닌 주체적 장소로 바라보고, 지역의 생물문화다양성을 탐구하여 지방적 지식을 축적하고 지역위기 극복방안의 도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지역문화전문가의 양성과 배출, 위기극복의 미래 구축 모델 디자인, 연구와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음 • 본 교육연구단은 네 가지 핵심분야로 문화생태의 변천, 역사생태경관의 사례 축적, 지역위기 재구성과 문제틀, 지속가능한 미래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설정했으며, 해당 아젠다를 연구주제로 참여교수와 학생들이 KCI논문, 학술저서, 국내외 학술회의발표 해외공동연구, 해외공동저서발간 등으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음		
교육역량 영역 성과	• 융복합에 기반한 창의도전교육, 실천능력에 기반한 사회기여교육, 이론과 응용을 결합한 현장중심교육, 전지구화와 지역을 함께 고려하는 총체적 교육을 실천 • 역동성, 통합성, 규범성, 활용성을 원칙으로 학사관리 실행, 입학에서 졸업, 취·창업에 이르는 전주기적 학사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함 • 핵심분야에 맞게 교과목 내용을 개편하고 연구역량의 교육적 활용을 통한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구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함		
연구역량 영역 성과	• 연구는 인류세의 지방화, 생물문화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상생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는 지역적 특성과 글로벌 문제를 연계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학술논문과 학술저서의 연구 성과를 제시하고 있음 • 해외우수 대학교와의 국제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외 학자들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해국제화역량을 강화시켰으며, 지역 문제를 전지구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해결하는 실천모델을 개발하여 세계와 공유할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함. 이는 연구의 글로벌 확장성과 실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달성 성과 요약	• 참여교수 : KCI논문게재 4편, 학술저서 5편, 국내학술대회 9건, 국제학술대회 1건, 학술연구용역 16건 등 • 신진연구인력 : KCI논문게재 5편, 학술저서 1편 국내학술대회 6건 등 • 참여대학원생 : KCI논문게재 7편, 학술저서 1편, 국내학술대회 15건 등 • 참여대학원생 우수 논문상 수상 5건 등 • 교육연구단 공식 학술행사 : 국내학술대회 1회 공동개최, 학술워크숍 1회, 연구계획 발표회 4회, 콜로키움 4회 개최, 국내·외 교육연수프로그램 2회 등		
미흡한 부분 / 문제점 제시	• 국제 연구역량강화 측면에서 국제학술대회 참여 및 SCI급 해외논문게재가 부족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학 능력 향상, 해외 장기 연수 시 연수지역의 언어능력이 모자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 발생		
차년도 추진계획	• 교수진의 연구 활성화 및 국제적 연구능력 향상, 교수진의 세계적 네트워크 및 국제활동 향상을 목표로 국제 학술 대회 참여 및 해외 학자와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인류세의 위기, 생물문화다양성, 문화생태 및 역사생태경관 등 주요 연구분야에 대한 워크숍과 현장전문가의 특강을 활용해 대학원생들이 지역위기 재구성 및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위한 연구방법론 교육. 논문 지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학술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국제 논문 제출 및 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Ⅰ 교육연구단의 구성, 비전 및 목표

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성 명	한 글	임 택	영 문	Yim ;taek
소 속 기 관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문화인류학과	

가.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역량

□ 대학원생의 논문 및 진로 지도의 우수

- 2018년 고고문화인류학과로 부임 후 석사 9명, 박사 1명 등 대학원생 배출. 현재 논문 지도 대학원생 수가 5명, 지도 학생 등록 수가 27명으로 논리적으로 일관된 논문을 작성하도록 자세히 지도
- 학생들의 논문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 실용적이고 활용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연구영역과 관심영역을 밀접하게 연결한 논문지도는 졸업 후 관련 분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함 '인류학 다락방'을 조직하여 지도학생의 논문지도를 정기적으로 조직적 지도를 함.
- 학생별로 매주 정기적인 논문 지도를 하고 있으며,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공동으로 참가하였음. 연구자로서 세계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국제학술대회 참여, 해외연수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이론과 현장연구에 체계를 갖추도록 지도함

□ 지역문제 해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의와 글로컬 현장연구

- 교과목 수업에서는 글로컬(global+local) 개념을 구체화하는 '글로컬 전북의 삶과 문화' 강의를 개설해 지역문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도함
- 학생들의 연구 논문과 관련된 현장 연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현장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사제동행캠프' 운영
- 세계적 차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국내와 해외의 국제협력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역문화를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있음 해외단기연수를 기획하여 해외 현장에서 연구지도

나. 교육연구단장의 연구역량

□ 탁월한 연구 업적과 세계적 시각으로 동아시아 문화를 탐구한 지역 전문가

- 저역서 50여 권(공저 포함), 논문 40여 편 집필. 일본 학술서적 26권 번역, 주요일간지를 통해 기사화됨. 번역된 일본 학술서적은 학계 및 일반 대중에 일본 문화와 사상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학술적 가치를 대중적으로 확산
-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현대사상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동아시아의 사상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동아시아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
- 20년간 '동아시아출판인회의'를 주도하며 동아시아 지식인 네트워크 형성과 민간 협력체제 구축에 기여, 지역의 생물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형성
- 한국과 일본 사회에 대한 비교론적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사회문화의 폭넓은 이해를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였으며, 역서『조선의 보고, 전라북도발전사』를 통해 역사생태경관을 포함한 문화적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

- 『슈리성으로 가는 언덕길』, 『앙코르와트』 『아시아의 무형유산』등의 저서와 번역서를 통해 해외의 문화유산 및 문화자원 보존 연구 수행,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
- 일본 근대 국민성 및 국가의 심성에 대해 『근대일본의 국민적 심성의 형성』을 통해 수행, 일본의 국제 교류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접경도시들-나가사키, 해외로 들고나는 일본의 현관』을 통해 심층적 이해를 도모함
- “일본의 '화혼양재'의 국가적 실천양상“ 등 일본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성 탐구 및 글로컬(Glocal)한 시각 형성을 추구함
- 동아시아 출판인 회의를 20년간 주도하며 지식인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 체제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동아시아 연구자 및 지식인들과의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일본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를 세계적 흐름 안에서 다각도로 탐구하고, 일본의 국민성 및 이데올로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 생물문화다양성과 역사생태경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제시

□ BK21 교육연구단의 아젠다와 밀접한 연구주제를 주도하는 책임 참여자

- 인류무형문화유산 연구 모임을 조직하여 학과 대학원생들과 함께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 중임. '생물문화다양성'과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으로, 아시아태평양인류무형문화유산센터 주최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에 참여하는 등 국제적 협력의 가능성을 개척하고자 함
- '전통지식 - 수리와 관개' 연구에 참여하여, 지역의 전통적 지식과 '생물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방화된 인류세 대응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임
- 『전북학연구』의 편집위원장으로서, 지역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역 연구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 위기 재구성과 관련된 연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 기념 '한국 문화의 날 in 시즈오카' 행사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 교류를 주관하며, '국제 문화 교류'를 통해 '생물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함. 전주무형유산 공연, 음식 시연, 문화 강연 등을 통해 지역문화의 가치를 전파함
- 일본 현지에서 일본 현지에서 지식인 심성에 대한 인터뷰 및 자료 조사를 진행함. 동아시아 출판인회의 참석과 지방 국립대학 교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학문적 연계를 모색하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일본의 화지 생산과정을 연구하여 '생물문화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있음
- '찾아가는 전북학' 교육사업을 통해, 전라북도 지역민의 정체성과 현안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 전북학의 학문적 깊이를 넓히고 대중적 인식을 확산시켜, '지구 규모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한다(Think global, Act local)'는 접근을 실현하고 있음.
- 국제 협력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연구 및 학문 교류의 '글로컬(glocal)'한 접근을 실현하고 있음. 다자간 협력 기반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연구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는 국제적 연구 연계와 지방화된 인류세에 대한 학문적 탐구의 일환임
- 일본의 지방국립대학과의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일본의 9개 대학의 책임자들과 상시 교류 중임.
- 디자인 소장품 수집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 디자인의 '창의적 가치' 확산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이를 통해 산업사회에 기여하고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해외 대학 벤치마킹 수행. 2022년 도쿄대학대학원 문화자원학연구전공을 대상으로, 학문후속세대 양성, 고도전문인력 양성, 전문사회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등 대학원 교육 개선 분야, 문화자원과 지역활성화 연구 등 지역사회와 산업공헌 분야, 대학원 중심 운영체제, 입학관리와 전공지도방식 등 대학원 체제 개편 분야를 중심으로 심층조사하고,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함. 학내에서 벤치

마킹 우수 사례로 선정됨.

다. 교육연구단장의 행정역량

□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원칙

- BK21 교육연구단 단장으로서 참여교수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파악함, 그리고 교육연구단의 운영 실무진과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전체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지원과 운영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 학술단체 및 연구조직의 운영 능력

- 2019~2020년 한국문화인류학회 회장, 한국일본사상사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한국 유구ㆍ오키나와학회 회장으로서 학술과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
- 2004년부터 동아시아출판인회의 조직위원장으로 매년 2회의 국제회의 조직 운영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원 협동과정 '무형유산정보대학원'의 전공주임으로 재직하면서 교육연구단의 아젠다 중 하나인 유무형문화유산의 연구영역 확장을 위해 노력
- 2020-2021 문화다양성연구소 소장
- 2020-2024년 4월까지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장으로 재직 중. 학술성과를 공표하는 출판문화원의 경영, 관리
- 2021년부터 한국출판인회의 주관 '아시아출판문화상' 조정 및 선고 자문위원 활동 중
- 2016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도서선정 위원회 참여
- 2024년 현재 한국가족학회 회장 임무 수행 중

□ 학술대회의 조직ㆍ운영 능력

- 2019년부터 한국문화인류학회 회장으로서 2년간 총 4회의 학술대회 조직
- 동아시아출판인회의 조직위원장으로서 매년 2회의 국제회의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음
- 한국가족학회 회장으로서 2024년 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조직하고 운영

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표 1-1>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전임 교수 현황 (단위: 명, %)

대학원 학과(부)	학기	전체교수 수	참여교수 수	참여비율(%)	비고
고고문화인류학과	2023년 2학기	8	8	100%	
	2024년 1학기	9	9	100%	

<표 1-2> 최근 1년간(2023.9.1.~2024.8.31.)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 교수 변동 내역

연번	성명	변동 학기	전출/전입	변동 사유	비고
1	빅 진	2024년 1학기	전입	신규 임용	

<표 1-3>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대학원생 현황 (단위: 명, %)

대학원 학과(부)	참여 인력 구성	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고고문화 인류학과	23년 2학기	30	11	37%	15	11	73%	0	0	0	45	22	49%
	24년 1학기	28	12	43%	16	8	50%	0	0	0	44	20	45%
참여교수 대 참여 학생 비율					247%								

<표 1-4>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연번	성명		직급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분야	대표연구업적물 분야	전임/ 겸무 (겸임)	신임 교수	외국인	사업 참여
	한글	영문								
1	임 택		교수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	전임	X	X	O
2	김 옥		교수		한국 고대고고학	한국 고대고고학 한국 고대고고학	전임	X	X	O
3	이 우		교수		서양고고학	기타고고학 기타고고학	전임	X	X	O
4	조 연		교수		동양고고학	동양고고학 기타고고학	전임	X	X	O
5	김 중		교수		한국 고대고고학	한국 고대고고학 한국 고대고고학	전임	X	X	O
6	전 령		부교수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	전임	X	X	O
7	진 숙		부교수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	전임	X	X	O
8	이 묵		조교수		환경및경제 인류학	환경및경제 인류학 환경및경제 인류학	전임	X	X	O
9	박 진		조교수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 생태인류학	전임	O	X	O
참여교수 수									9	
전임 교수 중 참여율									100%	
전체 참여교수 중 전임 교수 비율									100%	

3.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

본 교육연구단(Expert-BCD)의 지향점은 크게 네 가지로 설정하고 있음. 첫째, 인류세의 전 지구적 맥락과 지방의 문화생태학적 지식을 토대로 지역위기를 해결하는 전문적인 실천적 연구자 양성. 둘째, 역사생태경관에서 생물문화다양성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이론과 현장을 결합해 지역문화를 분석하는 시각을 가진 연구자의 양성. 셋째, 기존의 문제틀에 얽매이지 않는 글로컬(glocal)한 시각을 확보해 국내·해외 연구자들과 공동연구, 비교연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양성. 넷째, 실천적 지역문화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FOREST(Frontline선도성, Openness개방성, Responsibility책임성, Eligibility적합성, Steadiness연속성, Thoughtfulness사유성)'의 능력과 속성을 보유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임.
이에 계획서에서 제시한 미래 목표의 달성 방안과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음

<교육연구단의 미래 목표 달성 방안과 추진 방향>

비전	인류세 시대, 생물문화다양성 탐구를 통한 지역위기의 극복과 미래 구축
목표	• 인류세 시대의 위기와 재난을 극복하는 토대로 생물문화다양성을 가진 지방에 주목 • 지방의 역사문화생태경관을 탐구, 지방적 지식의 축적을 통한 지역위기 극복모델 디자인 •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지역문화전문가의 양성과 배출
핵심분야	•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에서 파생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연결과 역동성 파악 •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간 활동에 의해 생성된 역사생태경관의 사례 연구와 축적 • 인류세와 지역위기의 재구성과 구체적인 문제틀 도출 • 새로운 '생물문화다양성 모델' 창출에 의한 지속가능한 미래구축방안 제시

미래목표	이론과 현장이 결합하는 실천적 연구와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원 확립 → 세계적 수준의 지역문화 연구 및 활용 전문가 양성
구체적 목표	• 인류세와 생물문화다양성을 토대로 지역위기를 해결하는 실천적 연구자 양성 • 이론과 현장지식을 결합한 융합적 사고로 지역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자 양성 • 글로컬(glocal)한 시각과 혁신적 사고로 국제연구를 실행하는 연구자 양성 • 핵심가치인 '숲(FOREST)'의 능력과 속성을 지닌 실천적 지역문화전문가 양성 -선구성, 개방성, 책임성, 적합성, 안정성, 사유성
추진방향	• 인류세 지방화와 생물문화다양성에 기반한 이론적 분석·연구능력 강화 • 이론과 현장을 결합한 입체적 교육과 함께 실천능력 강화 •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 활동을 통한 국제적 연구능력 강화

가. 교육연구단의 영역별 계획대비 성과

1) 교육역량 영역

□ 산관학 협동프로젝트 확충
- 교육과정에 있어 연구역량의 교육적 활용과 사례 중심의 교육확대는 실질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 산관학 협동프로젝트의 성과로 헤이리 예술마을과 함께 문화예술교류 협력을 체결함. 이를 통해 학술활동 교류와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형성, 지식공유를 추진

- 국립중앙박물관의 현장전문가와의 학술교류 진행. 현장전문가의 특강교육은 현장성을 높이고 최신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심층학습의 결과 도출
- 산업계와 학계 간의 협력을 강화해 실무 경험을 쌓고 혁신적인 사고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

□ 인류세와 생물문화다양성 및 교육연구단 아젠다를 강화시키는 교과목 개설
- 인류세, 생문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 행위자연결망의 생태사회인류학(이 묵 참여교수), 인류세의 정치경제(전 령 참여교수), 전지구화시대 인류학 연구방법론(외부강사), 고고학과 자연과학(조 연 참여교수), 계량고고학 실습(김 옥 참여교수), 현대문화인류학특강1(임 택 참여교수)
- 역사생태문화경관 관련 교육 : 고분고고학, 중근세고고학특강(김 중 참여교수), 토기론특강(조 연 참여교수), 고고학 개별강독(이 우 참여교수), 취락고고학(김 옥 참여교수)
- 지방, 지역, 지속가능성 관련 교육 : 경제와문화 세미나(이 묵 참여교수), 인류세와 환경문화(외부강사), 고고학콘텐츠 및 아카이브구축 세미나(이 우 참여교수), 전지구화와 한국문화(임 택 참여교수), 젠더와 문화특강(진 숙 참여교수)
- 인류세와 생물문화다양성 및 역사생태경관에 관한 연구성과를 교육에 반영함으로써, 이론과 실제가 결합한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 및 학습 결과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을 마련함

□ 전주기적 학사관리를 통한 맞춤형지도
- 학사관리를 위한 지도교수의 심층 상담은 학생 개인의 학습 및 진로에 대한 맞춤형지도를 제공하였고 학생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줌
- 주기별 관리사항에 관한 매뉴얼작성은 교수와 학생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학사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 학생 중심의 ‘논문연구’ 개설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교수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연구의 질을 강화

□ 교육연구단의 핵심가치를 보유한 인재로서 선구성, 개방성, 책임성, 적합성, 안정성, 사유성의 특성을 통해 자기주도 연구와 공동연구의 균형을 추구하는 지역문화전문가의 인재상 확립

2) 연구역량 영역

□ 인류세의 위기를 지역의 생물문화다양성에 집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연구
- 문화·문명 연구에서 인류세의 지방화 양상 연구로, 인류세를 지방과 연결하고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핵심요소로 생물문화다양성에 집중하는 연구로 전환
- 지역적 맥락에서 인류세의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특성을 이해하려는 접근으로 인류세가 각 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
- 지역의 문화생태 변천에 관한 연구는 지역연구의 시야를 확대
- 지역연구에 역사적 관점을 도입해 과거와 현재의 생태경관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의 기초를 마련

□ 공동연구, 비교연구를 통한 국제적 역량 강화
- 연구의 질적 우수성 확보를 위해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공동연구를 확대
- 국내, 해외 공동연구의 주도적 기획과 추진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연구의 질적인 우수성을 확보
- 연구 기획 단계부터 결과물 제출까지 철저한 계획을 동시에 수립, 연구 성과의 확산 추진
- 국내외 사례의 비교연구 확대는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

여하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

□ 국내 연구 학술성과
- KCI급 논문 게재: 참여대학원생 7편, 참여교수 4편, 신진연구인력 5편,
- 국내・외 학술저서: 참여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참여교수 1편(해외공동), 참여교수 5편(국내)
- 국내 학술대회: 참여대학원생 15회, 참여교수 9회, 신진연구인력 6회 발표
- 국제학술대회: 참여교수 1회

3) 국제화역량 영역

□ 국제협력 공동연구 추진
- 국제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교수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제공동연구를 주도적으로 기획
- 국제공동연구, 국제협력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해외학자와의 연구교류,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 교류를 활성화
- 해외연구는 전 지구적 차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 지역문화를 분석하는 능력, 한국의 상황과 비교연구・분석하는 능력을 키워 세계적인 수준으로 국제화 역량을 강화

□ 해외연구 학술성과
- 국제학술대회 발표
  아제르바이잔 사회과학원(ANAS) 주최로 열린「아제르바이잔-한국-터키-조지아 고고학 과학 협력 국제 회의」에서 “A scientific study on the pottery distribution of the central and local regions of the Baekje Kingdom - focusing on Pungnap Fortress and the Hwacheon Woncheon-ri site.”란 주제로 발표함.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한 국제학술대회는 연구자들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인 연구교류가 이루어지고 연구 성과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의 역할을 제공
- 해외공동연구 저서 출간
  공동 저서『일본 가고시마 지역연구 문화유산과 지역 활성화』의 발간은 해외 공동연구의 실질적인 성과물로 국제적인 학술네트워크 형성과 연구활동을 활성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성과임. 특히 해외 연구자와 함께 대학원생과 참여교수가 함께 각국의 지역사회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했다는 점에서 높은 성과로 평가됨

나. 저명대학 벤치마킹 대상과의 비교 분석

1) 세계 저명대학 벤치마킹 결과의 반영

□ 벤치마킹 범위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도약을 위해 교육・연구체계, 교육과정,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체제, 국제와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선정함. 벤치마킹 대학은 교육연구단의 핵심 영역인 인류세 및 생물문화다양성 연구, 그리고 지역중심대학이라는 요소에 주목. 선정된 대학은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케임브리지대학교, 일본 홋카이도대학교, 스웨덴 스톡홀름대학,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싱가포르 국립대학 등이며, 대학별로 반영내용 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교육연구단의 아젠다와 지역중심 위주로 선정된 8개 세계 저명 대학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과학・기술・혁신 대학원	
교육・연구체계	•2개 전공(바이오경제・혁신・거버넌스, 과학・기술・사회) 설치 - 석사과정은 기본공동과목과 4개 핵심과정을 이수 - 박사과정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한 주제별 연구그룹 중심으로 운영 •두 전공이 병존하는 석사과정과 연구그룹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박사과정의 설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지리학과 인류세 과정 및 홀로세 과정	
교육과정	•인간 행위와 환경 간 관계의 역동성, 즉 생태적・사회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환경변화를 이해 •인류세에 대해 글로벌 차원과 지역적 차원 동시 접근(예: 기후 위기의 인식론적 측면)
[일본] 홋카이도대학교 문화다양성학과	
교육과정	•문화인류학, 예술학, 박물관학 융복합 교육 •문화다양성에 관해 철저한 현장연구(fieldwork)를 통한 실증적 연구
[스웨덴] 스톡홀름대학 인류학과	
교육과정	•인류세에 대한 역사적이고 지역적은 측면에 대한 교육 •생물문화다양성의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측면에 관한 교육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Academic Advising 멘토링 프로그램 •연구성장단계별 Fellowship 등 재정 지원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Graduate Writing Center에서 대학원생 논문작성 지원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대학	
국제화 역량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 및 세계 석학 초빙 프로그램 •해외 유수 대학과의 협력강화 방안

2) 벤치마킹에 기반 한 자체 혁신 계획과 성과

□ 교육・연구체계

- 석・박사 과정의 유기적 연계는 석사과정에서 기초적인 연구방법론과 이론을 습득하고 박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소규모 스터디 지원 사업>** : 소규모 스터디는 참여 대학원생 3~4명이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한 학기 동안의 주제를 정하여 그룹 스터디를 진행하는 사업임. 교육연구단에서는 식비, 인쇄비, 사무용품 등 스터디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 박사과정에서 교육을 심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실제 연구에서 응용 능력 제고
-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은 교육과정 및 연구 환경의 질을 고양. 학생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

를 바탕으로 커리큘럼이나 연구 지원 프로그램 조정

-- 연구 성과에 대한 포상 지급(대학본부 및 대학원 지원)

<드림 장학금 사업> : BK21+ 참여 대학원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함

<리서치 드림 포상 사업> : 참여 대학원생 중 학문적 성과(논문, 저서, 학술대회 발표 등)가 탁월한 학생과 학문후속세대(수료 및 박사 후 과정), 신진연구인력을 포상함. 우리 교육연구단에서는 이 우, 조 실이 수상 기록이 있음

<건강한 연구실 포상 사업> : 연구실 관리 및 연구성과가 우수한 연구실을 발굴하기 위해 대학본부가 실시하는 사업임. 학생 개인이 아닌 연구실 단위로 신청하는 사업임

□ 교육과정

- 인류세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환경변화, 사회구조, 경제적 요인등 다양한 요소가 상호작용 함. 융복합적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방법론을 통합하여 심층적인 이해를 추구. 따라서 학생들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학습하고 다학제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자 함
- 생물다양성과 인간 문화 간의 상호작용인 생물문화다양성은 지역 연구의 토대 개념으로 특정 지역의 고유한 생물학적 및 문화적 특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역 자원과 생태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생태적 중요성을 인식
- 현장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이론을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비교연구를 통해 특정 현상의 이해도, 지역이나 문화 간 차이와 유사성을 분석하여 연구의 관점을 확장

-- 교과 지원 프로그램 내용

<건지 교과목 중점지원사업> : CORE 교과목 육성 및 정부 핵심분야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과목 지원 사업입니다. 개설된 강의 중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선발하여 운영비 지원, TA 1 인을 지원함

-- 졸업 후 취업 연계 프로그램

대학 본부가 주최하는 **<대학원생을 위한 취업 박람회>** : 대학원생이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석・박사 이상의 학위가 조건이 되는 기업들이 학교로 찾아와 기업 홍보 및 취업 상담을 진행함

<고급인재 취업성공 프로젝트> : 석・박사 과정생들의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사업으로 주로 기업 채용 트랜드에 대한 분석, 인적성 검사 및 서류전형 정보 공유, 모의 면접 진행 등의 취업에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임

--**<국내 취・창업 연수 프로그램>** 2024년 1학기에 진행함. 헤이리 마을과 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하여 관계자를 만나고, 진행하는 사업, 필요한 역량, 채용 과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음

□ 연구역량 강화와 향상을 위한 지원체제

- 연구의 질과 양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지원체계가 필요. 연구 설계와 실행을 체계적으로 지도받기 위해 학생과 지도 교수의 밀접한 협업 중요

-- **<사제동행 논문작성 캠프>** : 지도교수와 지도학생이 논문연구 내용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대학원생의 논문작성 능력 향상을 도모함. 논문작성에 필요한 현지 방문 및 워크숍을 위한 식비, 대관료, 인쇄비 등을 지원하였음

- 다양한 연구프로젝트 참여와 연구 과제를 경험하며 실질적인 연구능력 배양과 연구기회 참여 확대
- 연구소와 기업, 산업체의 협력기회를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

- 워크숍, 세미나, 연구방법론 교육을 통해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
--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을 벤치마킹하여, 대학본부에 건의하여 진행함.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역량 향상 프로그램> :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할 때 필요한 프레젠테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해외 학술대회 발표 특강> :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필요한 영어 능력과 영어 프레젠테이션 작성 능력 향상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 연구자들에게 논문 게재와 저술 지원을 고도화하는 방안으로 연구자가 논문을 작성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전문가와의 협업기회를 제공
-- 스탠포드대학을 벤치마킹한 멘토링 프로그램 및 전문가 활용

<대학원생 1:1 논문 코칭 프로그램> : 대학원생의 논문 진행 상황에 맞는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여 논문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신청 학생의 논문 분야를 고려하여 해당하는 전문가를 매칭해 주었음

<논문 연구 마스터 전략(영어 논문작성 강의)> : 국제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어 논문작성을 지도하고 도와주는 비교과 프로그램. 영어 논문작성의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음

<건지(GEONJI) 논문 지원 프로그램> : 대학원생 및 학문후속세대에게 초기 연구기획부터 연구성과 발표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통한 연구 몰입도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논문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줌

<JBNU 논문기초 역량강화교육> : 논문작성에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하고 조언하는 사업. 1:다수로 진행하였음

- 자신의 연구주제와 맞는 학술지를 선정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게재 확률을 높임
- 논문 게재 후 연구자들의 성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 다양한 학문적 교류와 연구 네트워크 확장
-- **<JBNU BK21 FOUR 성과포럼&학술연구전시회>** : BK21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단(팀)별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임. 성과 자료를 포스터로 전시하였으며, 우수 사업단의 경우 우수성과 발표를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단은 학내 우수 교육연구단으로 참여하였음

□ 국제화 역량강화

-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 국제적 연구협력 프로젝트의 참여를 통해 연구자의 학문적 성장을 촉진
-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JBNU-G 연구자 연구성과 교류회>** 대학 본부와 대학원 BK사무실에서 실시한 논문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성과 발표회
- 대학본부에서 운영하는 국제화 프로그램은 장학금 지원, 해외 연구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그리고 국제 학술대회 참가지원 등 적극 권장
--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국제공동연구 사업

<JBNU-G 국제공동연구사업> : 대학원의 국제화분야 중장기 운영체계 마련 및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연구단(팀)의 소속 참여교수와 대학원생이 팀을 이루어 국제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 학부 중심의 국제화 사업을 대학원 연구중심으로 국제화 플랫폼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추가 지원 사업> : 국제적 연구역량 강화 및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학원생이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국제학술대회에 논문 구두 발표 확정자에게 항공료 및 체제비를 지원함

<우수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수> : 1년 동안 해외 기관과 연계하여 BK참여 대학원생을 파견하여 현지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업. 현재 우리 교육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 이 우

가 일본 가고시마에 파견 중임

<해외 교육 연수 프로그램> : 2024년 1월에 가고시마대학으로 교육 연수를 진행함

<해외 공동 연구 총서 집필> : 가고시마 해외연수의 결과로 가고시마 대학 카 로 이 에 교수와 공동 작업을 하였음

<가고시마 대학 학술 교류 행사> : 매년 8월 말에 진행하는 가고시마 대학 현지 조사 프로그램을 학술교류 행사로 발전시켜, 양 대학 대학원생 및 연구자와 교류 할 수 있는 행사를 조직함

- 국제적인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 국제적인 연구협력과 경험을 통한 연구능력 향상 도모
- 국제 학술대회, 포럼 공동개최에 의한 국제적 연구와 학문적 네트워크 확장 개최. 세계 각국에의 연구자들이 학생들과 함께 연구 성과를 발표, 학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

-- 산학협력전담인력의 해외연수를 통한 해외 연구기관 접촉: 기꼬만국제식문화연구센터, 화식문화국민의회 등

II 교육역량 영역

□ 교육역량 대표 우수성과

-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대학원생 연구 실적
- KCI 등재학술지 논문 7편, 해외공동연구저서 1편,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15회, 연구용역 10건, 수상 4건. 그중 본 연구단 '교육 및 연구 영역 핵심 분야' 별로 대표 실적을 정리
- 특히 박사과정생 논문게재 독려를 위한 BK21 교육연구단의 내부규정의 강화는 박사과정들의 논문실적을 탁월하게 향상시킴. 그리고 석사과정생은 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발표 능력을 키우고, 우수상을 수상하는 학문적 성과를 이끌어 냄
- 해외연구는 연구자에게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연구 경험은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이해하고 연구자의 학문적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 마련. 이를 토대로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논문 게재, 저서 발간으로 이어지는 학문적 선순환 고리를 구축해 학문적 성취감 고취

연구단 핵심 영역	우수성과	연구성과내용
문화생태의 변천	논문	• 박 숙(2024), 전주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형성과 변화-일제강점기 사진그림엽서 속 경관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문화학회』 • 장 기(2024), 20세기 후반 전주지역 제과점의 사회문화적 의미, 『지역과문화』 • 서 임(2023), 일본 니가타현 청주산업의 전개과정, 『건지인문학』
	저서	• 권 지 외(2024), 문화유산과 지역활성화, 신아출판사
역사생태경관의 사례 축적	논문	• 서 임(2024), 일본 가고시마현(鹿児島県) 소주장(焼酎蔵)의 문화자원화, 『한국과세계』
	수상	• 서 임(2024), 한국지역문화학회 우수논문상 수상(전주모주의 관광상품화와 의미변화에 대한 연구) • 한 구(2024), 문화콘텐츠 연합학술대회 우수 포스터 논문상 수상(문화유산 콘텐츠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위기 재구성과 문제틀	논문	• 김 희(2024), 태안 유류피해극복 기념관을 통해 본 집합기억의 구성과 서사적 재현, 『문화와융합』 • 이 우(2023), '미치노에키(道の駅)' 의 지역 내 역할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과 일본의 고속도로 휴게시설 비교를 중심으로, 『융합관광콘텐츠연구』
	수상	• 이 우(2023), 한국지역문화학회 포스터 발표 장려상(일본의 지역 활성화 사례 고찰 : '미치노에키 타루미즈하마비라(道の駅 たるみずはまびら)' 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구축 방안 제시	논문	• 장 기 외 1인(2024), 색채를 활용한 일본 가고시마현 지역 활성화 사업의 전개와 의미, 『지역과문화』
	수상	• 강 지(2024), 한국지역문화학회 우수 포스터 수상(고고학 유적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의 발전 방안 연구)

학술대회 및 연구용역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 서 임(2024), 한국지역문화학회 학술대회, (2023), 한국문화인류학회 학술대회, 한국문화경제학회 학술대회 • 강 지(2024), 한국지역문화학회 학술대회 • 한 구(2024), 문화콘텐츠 연합학술대회 • 박 연(2024), 한국지역문화학회 학술대회 • 정 민(2024), 문화콘텐츠 연합학술대회 • 문 오(2024),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학술대회 • 권 지(2023), 한국여성학회 학술대회 • 김 희(2023), 한국지역문화학회 학술대회 • 김 람(2023), 한국문화인류학회 학술대회 • 이 민(2023), 한국문화인류학회 학술대회 • 이 우(2023), 한국지역문화학회 학술대회, 한국문화인류학회 학술대회, 한국문화 경제학회 학술대회
	연구용역	• 김 람, 서 임, 이 우: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세부계획 수립 • 김 람, 서 임: 오향이 살아 숨 쉬는 인문도시 정읍 • 권 지: 민선8기 공약 2-13세 아동의 미래희망 성장사다리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 김 희: 전라북도 인권 역사현장 발굴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 • 이 우: 전북 문화예술교육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 쌀·삶 문명연구원 연구 용역 • 장 기: 쌀·삶 문명연구원 연구 용역 • 김 희: 2024 고창 문화예술인 인물사전 용역 • 차 호, 한 구: 완주 상운리유적으로 본 만경강권역 마한 철기문화

- 참여교수는 교과목 수업에서 해당 논문 및 저서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이론과 사례 연구 등을 제시, 교육연구단의 아젠다인 인류세의 지방화, 생물문화다양성과 함께 문화생태, 역사생태문화경관의 사례연구, 지역위기 재구성과 지속가능한 미래구축을 위한 방안 등 핵심분야에 맞는 연구지도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교육역량에 크게 기여
- 논문작성과 학회발표에 대한 일대일 맞춤 교육과 참여교수의 밀착 지도를 통해 실적 증대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가.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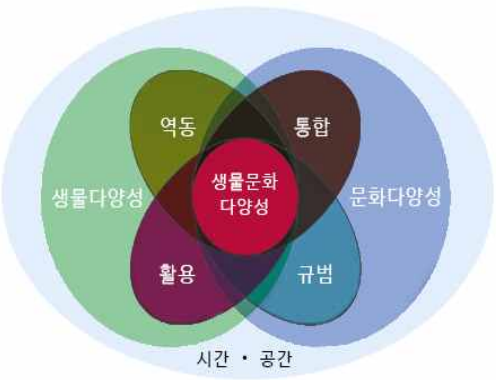
1). 교육과정 및 교과목 체계의 구성 및 실적

교육과정 목표	• 문화·문명 연구를 통해 지역위기를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대처하고 더 나아가 극복하는 ‘지역문화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 4대 원칙	• 융복합에 기반한 창의도전교육 • 실천능력에 기반한 사회기여교육 • 이론과 응용을 결합한 현장중심교육 • 전지구화와 지역을 함께 고려하는 총체적 교육

운영전략	•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의 관점과 핵심 분야 연결, 교과과정 개편 • 인류세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연구능력 제고, 지역문제 분석 능력제고 • 이론연구와 현장연구를 결합한 현장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 제공 • 다학제간 프로젝트, 산학협동 프로젝트를 활용한 실질적인 학습기회 제공 • 문화융합 지속발전 전략 구축에 대한 응용력과 통찰력 배양을 위해, 공동 강의, 공동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육기법 도입과 실천 • 해외현장연구를 통한 국제화 역량 강화와 지역위기극복 방안의 실천능력 배양

가) 교과과정 개설 현황

- 인류세 시대와 지방위기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핵심 분야별로 핵심 과목을 구분, 이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 현장에서 습득한 최신 연구 결과를 교과목과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여 강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개편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적 접근법과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는 교과목을 재구축하여 '인류세의 정치경제', '행위자연결망의 생태사회인류학' 과목을 신설함. 이를 통해 지역의 전통적 생태적 지식과 문화적 실천을 연구하고, 글로벌 사회의 위기상황에 대응할 해결책을 제시. 특히, 인류세의 지방화와 지방의 생물문화다양성을 연결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적 대응 방안을 탐구
- 기존의 분과학문 체제에서 융복합을 지향하고 현장중심 교육과 연계하는 지역의 프로젝트가 부족한 한계를 극복, 합동 강의와 공동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추진함. 이에 고고학 전공과 문화인류학 전공의 융합교육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원칙에서 융합에 초점을 맞춰 교육연구단의 문제의식 강화
- 교육과정 운영의 4대원칙과 교과목 체계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에서의 인류세와 생물문화다양성이 맺는 관계를 설정해 그에 상응하는 핵심영역을 도출함. 그리고 핵심분야별 대학원 강의 실적과 그에 따른 개편 및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역동	• 문화생태의 변천 - 환경과 인간, 자연과 문화가 연결되는 방식과 관계의 역동성
통합	• 역사생태경관의 사례 축적 - 인간과 환경, 자연과 문화의 조정과 통합의 표현인 역사생태경관의 사례
규범	• 지역위기 재구성과 문제 틀 도출 - 중앙 의존 등으로 축소·환원되는 지역 위기 재정의
활용	•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방안 제시 - 지역위기 극복과 미래 구축을 위한 정책을 디자인하고 실행

(1) 문화생태의 변천

□ 행위자연결망의 생태사회인류학(신설)

- 담당 교수 : 이 묵
- 개설 학기 : 2024년 1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인류세 위기에 대응하는 인간·비인간 행위자의 매개와 번역의 사례를 통해 재검토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임. 기술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요소로 문화와 결합하여 기술-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발논리와 보존논리의 병존과 충돌, 인류세 위기에 따른 현대적 생활양식의 전면적 개조 요구와 사회적 갈등까지 이어짐. 이에 본 세미나는 환경과 기술, 생태와 커먼즈, 자연과 자원, 재해위기와 방재기술, 인류세 담론, 멸종위기, 탄소중립과 산업구조 변호농업보조금 축소, 환경파괴 산업과 상품의 축출, 공진화, 글로벌 팬데믹 위협 등의 주제를 아우름.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연결하고 대응하는지 이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인류세 위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함

□ 전지구화시대 인류학 연구방법론
- 담당 교수 : 오 훈
- 개설 학기 : 2024년 1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전지구화(globalization) 시대의 현대 사회 속에서 인류학 연구방법론을 탐구하는 데 강의의 중점을 둠. “연구방법론“이란 자료수집을 위한 조사 기법, 수집된 자료를 파악하고 분류하는 작업 원칙, 분류된 자료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등을 포괄하는 개념. 이 수업은 이러한 연구 과정의 각 단계를 이해하고, 지구화가 인간 사회 및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인류학적 도구와 접근법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함. 따라서 전지구화 시대라는 현대사회의 속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습득해 실제 연구에 활용. 또한 비판적 사고와 분석능력을 향상시켜 실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배워 인류학적 연구의 실천적 역량 강화함

□ 인류세의 정치경제(신설)
- 담당 교수 : 조 경
- 개설 학기 : 2024년 1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최근 전 지구적 차원에서 큰 이슈로 등장한 ‘인류세’와 ‘기후 위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함. 그러기 위해 문화인류학, 인문지리학, 환경사회학 등 관련 학문에서 ‘인류세’ 및 ‘기후 위기’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어떤 연구 주제들을 파생시켰는지 살펴보고자 함. 특히 인류세와 기후 위기를 자본 투자와 기술적 해결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기존 관점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 이론과 인류학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시대적 질문으로 다루며, 최근 인류학 안팎에서 논의된 비판적 논의들을 포함. 또한 인류세와 기후 위기가 자본주의적 질서를 어떻게 강화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지 탐구하며 그 밖의 정치사회적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함

□ 고고학과 자연과학
- 담당 교수 : 조 ˇ연
- 개설 학기 : 2024년 1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고고학은 인류세를 포함한 인류의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자연과학의 활용이 필수. 본 강의에서는 먼저 고고학사에서 자연과학 분석 방법의 도입 및 자리매김 과정을 살펴보고 현대고고학 연구에서 자연과학의 역할을 논의. 이어 지질학, 암석학, 토양학, 분

석화학, 금속공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의 여러 분야가 다양한 고고학 자료들의 연구와 해석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고학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 자연과학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논의. 따라서 인류세와 관련된 고고학적 연구를 다루며, 현재와 과거를 잇는 연대기를 이해하고 지구변화에 대한 고고학적 시각의 확장을 도모함. 또한 인류세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시각을 개발함과 동시에 생물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점을 숙지하게 함

□ 계량고고학 실습
- 담당 교수 : 김 옥
- 개설 학기 : 2024년 1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고고학적 자료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량적 방법을 이해하고 실습하는 데 수업의 중점을 둠. 계량고고학은 고고학적 데이터를 수치적이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패턴을 발견하고, 과거 인간 사회의 행위나 구조를 보다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방법론. 또한 실제 고고학적 자료를 사용하여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는 실습을 진행. 유물의 출토 패턴,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교역 경로의 분석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계량고고학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체험. 계량고고학의 기술과 방법을 익힘으로써, 학생들은 향후 고고학 연구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연구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역량을 강화함. 특히, 학술연구나 현장조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 습득을 도모함

□ 현대문화인류학특강1
- 담당 교수 : 임 택
- 개설 학기 : 2024년 1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본 수업은 현대 사회와 문화의 복잡성을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함. 전통적인 인류학적 연구를 넘어,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문제들을 다룸. 현대화, 지구화, 디지털화, 도시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적 변화를 분석. 특히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인간의 문화적 실천과 생활양식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더 나아가 환경문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대적 인식 변화를 다루며, 환경, 경제, 문화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해 기후변화, 인류세 등의 문제를 문화적 맥락에서 고찰. 이는 현대 사회의 문화적 변화와 그로 인한 갈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문화 사회와 글로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킴

(2) 문화생태・역사생태경관의 사례 축적

□ 중근세고고학특강
- 담당 교수 : 김 중
- 개설 학기 : 2024년 1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최근 발굴조사가 급증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중근세고고학의 조사 상황과 연구 경향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전망과 연구방향을 탐색하고자 함. 중근세고고학의 역사적 및 고고학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최근 발굴 사례를 통해 도시화, 상업 발전, 사회적 계층화, 종교적 변화 등 중근세의 사회적 변화를 분석하고 현재 연구 경향을 살펴봄. 중근세고고학의 탐구과정에서 현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고고학이나 고고학적 환경 분석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함

□ 고분고고학
- 담당 교수 : 김 중
- 개설 학기 : 2023년 2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한국의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에서 축조된 고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과 방법론을 살펴본 다음 구체적으로 고분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분석함. 고분을 통한 고대 한국사회의 구조와 변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론적, 방법론적 접근을 습득함. 고분고고학에서 역사적 정보와 사회적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고대 문화유산의 현대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킴

□ 토기론특강
- 담당 교수 : 조 연
- 개설 학기 : 2023년 2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본 수업은 현대 고고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물인 토기에 관한 최근 연구의 현황과 방법론을 점검함으로써 이 방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최신 과학적 기법과 기술을 활용한 토기 분석 방법을 습득해 연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토기는 단순한 유물로 보지 않고 그것이 가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을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고대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

□ 고고학 개별강독
- 담당 교수 : 이 우
- 개설 학기 : 2023년 2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본 수업은 인류의 진화와 구석기문화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함. 인류의 진화와 석기유물의 변이성을 서구적인 시각이 아닌 아시아적인 시각에서 검토함. 이를 통해 서구 중심의 고고학적 해석에서 벗어나 아시아에서 발생한 인류의 진화와 문화의 독립적인 발전과정을 이해하게 됨. 따라서 아시아의 고고학적 자료와 유물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 시각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고고학적 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이론적 및 실천적 기초의 토대를 마련함

□ 취락고고학_김 옥
- 담당 교수 : 김 옥
- 개설 학기 : 2023년 2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본 수업은 취락고고학에 대한 이론과 방법론을 살펴보고 한국의 취락자료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취락을 연구함으로써, 환경변화와 문화적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어 사람들의 삶이 형성되어왔는지 이해도를 고양시킴. 또한 취락고고학 연구는 발굴, 공간 분석, 환경분석 등 다양한 고고학적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실제 고고학적 연구방법을 학습하고 다양한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 특히 역사생태공간을 이해하는 고고학적 방법에 대해 철저하게 탐구함

(3) 지역위기의 재구성과 문제틀 도출

□ 도시문화정책특강
- 담당 교수 : 한 석
- 개설 학기 : 2024년 1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본 수업은 도시의 구성 원리와 구성 방식, 도시에서 재현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음. 도시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복합체로 이해하고 도시문화에 대한 다차원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하고자 함. 또한 도시문화와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계획되고 실행되는지를 살펴 도시문화 정책을 분석하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의 이해를 도움. 이를 통해 문제해결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와 정책적 대응과 제안 능력을 향상시킴

□ 인류세와 환경문화
- 담당 교수 : 오 훈
- 개설 학기 : 2023년 2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문화인류학에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 온 연구 경향을 다룸. 문화생태학, 정치생태학, 인류학의 존재론적 전회, 기후변화와 인류세 등 크게 네 가지 범주의 주제를 검토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임. 다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기후위기와 같은 글로벌 문제를 다각적으로 비판하는 사고능력을 함양함. 또한 다양한 학문을 융합적으로 다루면서 복합적인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기후변화와 인류세의 이해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함

□ 젠더와 문화특강
- 담당 교수 : 진 숙
- 개설 학기 : 2023년 2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본 수업은 노동의 윤리에서 돌봄의 윤리로의 전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함. 사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돌봄이 이제 인간의 보편적 사회관계, 사회정의, 시민권 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정치적 윤리적 의제가 됨. 이 주제에 대해 페미니즘 돌봄 윤리 이론을 활용하여 관계적이고 상호의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성찰, 가부장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돌봄 윤리의 실천 방향을 모색함

(4)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방안 제시

□ 고고학콘텐츠 및 아카이브구축 세미나
- 담당 교수 : 이 우
- 개설 학기 : 2024년 1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구석기시대 주먹도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정리하고 이를 자신의 향후 연구를 위한 자료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음. 주먹도끼라는 구석기 시대의 중요한 유물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고고학적 사고와 연구 방법을 익히게 하고, 향후 학문적 탐구를 위한 탄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유물의 기능적 관점, 문화적 및 사회적 관점, 기술적 관점 환경적 관점 등을 통해 주먹도끼를 이해하며, 고고학적 분석 및 연구방법론을 실습하는 기회를 제공함.

□ 전지구화와 한국문화
- 담당 교수 : 임 택
- 개설 학기 : 2023년 2학기
- 교과목 개편 및 개선의 내용과 기대효과
  본 수업은 전지구화 시대 한국의 사회문화, 정치경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매주 전지구화 속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글로벌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함

나) 교육과정의 충실성과 지속성 확보

□ 전(全)주기적 학사관리 운영: 입학에서 졸업 및 취창업까지
- 현재 학사제도와 규정을 점검하고 재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학사관리 규정을 마련,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 아래의 학사관리 주기표에 따라 단계별 관리와 총괄적인 흐름을 관리

입학 전 관리	• 전공과정 설명회(주요 과목 설명 및 연구모임, 학술대회 등 소개) •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에 대한 검토
입학과 등록 관리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학기 단위 연구 계획 수립 설명 • 외국인 유학생에게 입학 절차 도우미 배정 • 장학금 종류 소개 및 선정 기준 설명 • 연구 지원 프로그램 설명 • 연구 및 논문 작성에 도움이 되는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수업관리	• 수강신청 전의 충분한 상담과 과목 소개 • 엄격한 출결관리, 과제물 관리 • 스터디 모임 장려 및 발표회 지원
학적과 성적관리	• 연구계획서와 연구결과보고서 관리 및 지도 철저 • 수업 보충 자료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학생활동 관리	• 학술대회 및 학술지 정보 취합 및 배포 •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 • 개인 연구 활동에 대한 답사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 연결 • 홈페이지 활성화
비교과 과정 관리	• 연구윤리교육 강화 • 논문작성법 관련 강좌 수강 의무화 • 영어 논문 쓰기 프로그램 진행 • 논문에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교육 진행(한글,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
취·창업 관리	• 경력 플랜에 따른 이수관리 모델 설정 • 과정에 따른 취업 가능한 모델 제시 • 인턴쉽 장려 및 취·창업 교육 답사 프로그램 진행
학위취득 및 졸업 관리	• 학위논문 표절 검사 의무화 • 챗GPT 관련 검사 의무화 •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장소 마련 • 수료생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별도 운영

□ 학생중심의 논문지도 강화

- 기존의 논문지도는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지도가 우선시 되었으며, 연구 활동을 위한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발표 논문 등의 지도가 미비하여, 학위논문뿐만 아니라, 학기별 지도학생의 기타 연구 논문의 적극적인 지도를 계속적으로 요구
- 이에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이 한 팀을 이루어 연구계획서 단계부터 철저한 지도
- 학술지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 지도를 강화해 연구주제에 적합한 학술지에 게재 독려. 학술대회 참여 정보를 제공하고 발표로 이어지기 까지 피드백 제공. 발표 시 논문작성의 기준과 절차를 이해시키고 연구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훈련
- 논문 제출 후 돌아오는 연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분석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논문작성 능력과 연구자의 학문적 성장 촉진

□ 참여대학원생 연구 활동 지원

-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와 학술논문 게재에 필요한 경비 전액 지원
- 해외 연구활동에 필요한 활동 지원. 국제 학술대회, 해외 장, 단기 연수 지원
- 참여대학원생들의 소규모 연구모임 경비 지원
- 2023.09.01.-2024.08.31. 기간 동안 연구 활동 지원 현황

2023년 2학기	논문게재 2명, 학술대회 10명 지원	**2024년 1학기**	논문게재 5명, 학술대회 5명 지원

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동료 교육 프로그램

- 매 학기 3회 이상, 고고학과 문화인류학 전공을 나누어 콜로키움을 진행하였음. 대학원생들은 정기적인 학술 행사의 논문 발표기회를 통해 발표능력 향상. 신진연구인력과 참여교수, 그리고 참여대학원생이 주축이 되어 연구계획서 발표와 콜로키움을 진행하여 교육연구단 참여 학생의 토론과 논쟁 경험을 유도.
- 개개인의 연구과정 진행 상황을 매학기 점검함으로써 지속적인 긴장감을 유지. 각 발표에 토론자 지정하고 토론자 외의의 학생들 간의 토론 진행. 이를 통해 학문적 상호작용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는 효과를 거둠.
- 소규모 연구모임은 협업을 통한 지식교류, 책임감 있는 연구 진행, 전문성 강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심화된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 또한 소규모 그룹은 적극적인 참여와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 개인의 학문적 성장과 연구능력 향상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옴

□ 2023년 2학기 연구계획서 발표행사

문화인류학 전공	• 폐기물 처리의 사회적 과정 전주 “쓰레기 대란”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지역의 주민정치(이 민) • 귀촌인의 문화활동 양상과 공동체적 특징 - 완주문화도시사업을 중심으로(유 춘) • 근대화 시기 이후 국내 집(住居)과 밥(食)의 변화상 고찰(김 희) • ‘미치노에키(道の駅)’ 정책과 지역활성화 정책 간의 관계(이 우) • 전주시 종교경관 장소성의 형성과 변화 -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박 숙) • 해외 교민이 고향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 - 중국 칭톈현을 대상지역으로(진) • Nuoc Mam: Cultural heritage of Vietnamese cuisine(호) • 취향 공동체에 관한 연구 - 우리술 교육기관을 중심으로(서 임) • 돌봄부정의 비판 : 30~50대 양육자의 돌봄(자녀-자기) 실천을 바탕으로(권 지)

	• 조울증(양극성장애)을 진단 받은 2~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류학적 관찰기(김 림) • “내 혼은 꽃비 되어”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 청소년 성소수자 애도 ‘불/가능성’을 둘러싼 이야기의 다층성과 역동성(문 오) • 전라감영을 둘러싼 담론분석과 상징정치(김 람)
고고학	• GIS 기술로 살펴본 한국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 유적의 공간 분포와 영향 요인(왕) • 전라북도내 고려 토광묘 연구(이 진) • 백제 성곽의 집수시설 연구(송 범) • 섬진강 구석기 유적 밀개 분석연구(박 연) • 주거지 출토 배식기를 통한 한성 백제기 반상 문화 연구(이 윤) • 백제 화장(火葬)문화의 의미(정 민) • 4~6세기 단면 플라스크형 원형수혈 연구 - 호남지역을 중심으로(차 호) • 백제 벽주식 건물의 기능과 성격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한 구) • 한강 이남지역 고구려 석실묘 연구(이 헌)

□ 2023년 2학기 1차 콜로키움

문화인류학 전공	• 소각장 옆 S마을의 정치과정(이 민) • 양육자의 돌봄 공백 경험과 그 의미(권 지)
고고학	• GIS 기술로 살펴본 한국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 유적의 공간 분포와 영향 요인(왕) • 전라북도내 고려 분묘 부장유물 검토 - 훼기 토기를 중심으로(이 진) • 호남지역 성곽 내의 집수시설(송 범) • 섬진강 구석기 유적 밀개 분석연구(박 연) • 한성 백제기 취락 출토 배식기의 소비 연구(이 윤) • 백제 화장(火葬)문화의 의미(정 민) • 영산강 상류역 백제 저장수혈 검토(차 호) • 백제 벽주식 건물의 기능과 성격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한 구) • 한강 이남지역 고구려 석실묘 연구(이 헌)

□ 2023년 2학기 2차 콜로키움

문화인류학 전공	• 1950~1990 전주지역 제과점을 중심으로 살펴본 ‘빵의 의례화’ 소비 의미(장 기) • 전주시 도심 속 역사문화관광자원의 형성과 변화 : 일제강점기 사진그림엽서를 중심으로(박 숙)
고고학	• GIS 기술로 살펴본 한국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 유적의 공간 분포와 영향 요인(왕) • 호남지역 성곽 내의 집수시설(송 범) • 섬진강 구석기 유적 밀개 분석연구(박 연) • 한성 백제기 취락 출토 배식기의 소비 연구(이 윤) • 백제 화장(火葬)문화의 의미(정 민) • 영산강 상류역 원형수혈 검토(차 호) • 백제 벽주식 건물의 기능과 성격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한 구) • 한강 이남지역 고구려 석실묘 연구(이 헌) • 유적지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의 발전 방안 연구-‘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를 중심으로(강 지)

□ 2024년 1학기 연구계획서 발표행사 (연구 주제 공유 및 토론)

문화인류학 전공	•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의 장치와 효과 - 축구팀을 중심으로 바라본 일본 가고시마 지역 사례(권 지) • 태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통해 본 재난의 서사화와 집합 기억의 재현(김 희) •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의 배치로서 달집태우기 - 사천 선상지 용현선단의 두 마을을 중심으로(김 현) • 장소기억에 나타난 전주읍성의 문화경관 해석(박 숙) • 술맛에 관한 탐색적 연구(서 임) • 색채를 활용한 지역 브랜딩 - 일본 가고시마 사례를 중심으로(장 기) • 국내 청소년 성소수자 인정 요구 형식의 구성사와 문화정치 비판 - 1990년대 미디어 재현 방식을 중심으로(문 오)
고고학	• 바이써 분지 주먹도끼의 기술과 형태속성 연구(왕) • 운영 주체에 따른 축제 프로그램 변화 양상 검토 -연천 구석기 축제 사례를 중심으로(강 지) • 영남일대 신라 성곽의 집수시설(송 범) • 섬진강 구석기유적 문화층의 성격(박 연) • 신석기~초기철기시대 배식용 토기의 기능과 변천(이 윤) • 고려시대 사지(寺址)의 현황과 특징(정 민) • 호남지역 웅진·사비기 저장시설 검토(차 호) • 주거지로 본 호서지역 백제문화 유입 연구(한 구) • 백제 한성기 성곽과 관방체계(이 헌) • 호남 중심의 박물관을 통한 가야사 재인식(신 호) • 통일신라시기 남원소경(南原小京) 도시구조에 대한 연구(이 후) • 익산지역 백제 사비기 연화문 수막새 비교검토(이 안) • 고려도기 생산의 이해(조 진)

□ 2024년 1학기 콜로키움

문화인류학 전공	• 재난 극복 기록물의 유산화: 태안 유류피해극복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중심으로(김 희) • 일본 음식문화의 국내 유입과 확산(장 기)
고고학	• 호남지역 백제 고상식 건물 기능 검토(치 호) • 통일신라 시기 남원소경 도시구조에 대한 연구 - 방리제를 중심으로(이 후)

라) 소규모 연구 모임을 통한 연구능력 향상

□ 가고시마 지역 연구 세미나

- 참여대학원생: 장 기, 서 임, 엄 양
- 연구모임 내용 및 기대효과

가고시마 해외교육연수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논문을 작성함을 목표로 했음. 일본 맞 관련 해외 지역 연구 논문을 검토. 가고시마 지역의 문화 및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일본의 근현대 역사와 지역 문화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정리함. 일본어 원서를 대학원생들이 협동해 독해하며 일본 원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가치관과 지역 주민들의 정서 파악, 그리고 언어 능력을 향상시킴

□ 연구법 성장과 시야 확장을 위한 고고학 스터디
- 참여대학원생: 빅 연, 이 윤, 정 민, 차 호
- 연구모임 내용 및 기대효과
  고고학은 모든 과거의 유산을 다루는 학문인 고고학이 광범위한 자료를 다루게 됨. 또한 넓은 시간적 범위를 다루기 때문에 팀 구성원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르고, 그에 따라 정보의 깊이가 차이가 큼. 따라서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지식 습득 및 세미나의 필요성 대두.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한 논문을 함께 읽고, 각자가 진행할 연구에 적합한 방법론을 훈련함

□ 원조이(One Joy)
- 참여대학원생: 이 후, 이 안, 조 진, 한 구
- 연구모임 내용 및 기대효과
  계량고고학에서의 자료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통계학의 개념 및 방법을 적용해 문화적 해석을 도출하는 방법론 학습. 고고학 논문 작성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계량고고학의 개념과 이론을 교재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이론을 바탕으로 통계프로그램(SPSS) 실습을 통해 얻은 분석 결과를 논문 작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



<'연구법 성장과 시야 확장을 위한 고고학 스터디' 소규모 연구모임>



<'원조이(One Joy)' 소규모 연구모임>

2) 교육목표 달성 실적

가) 세계수준의 연구를 위한 대학 지원프로그램 활용

□ 해외교육연수프로그램_단기연수
- 일본 가고시마 지역의 해외단기연수에서 진행된 교육프로그램 참여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를 마련. 국제적인 연구협력과 정보 교류 촉진, 글로벌한 연구 동향을 파악
- 가고시마 지역은 일본의 독특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가진 지역으로 실제 연구 현장에서 이루어진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구체적 연구주제 도출
- 이론과 현장이 결합하는 실천적 연구와 교육을 선도하는 본 교육연구단의 목표에 부합한 모델. 현장에서의 자료수집,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 심층면담의 진행 등 지역 특성을 이해한 현장연구방법 습득
- 단기연수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와 논문 작성 그리고 학술지 게재와 단

행본 발간까지 연결함
- 2023년 2학기에 이루어진 단기해외연수프로그램를 통해 참가자 전원의 학술대회에 발표, 논문게재, 우수상 수상 등의 성과를 거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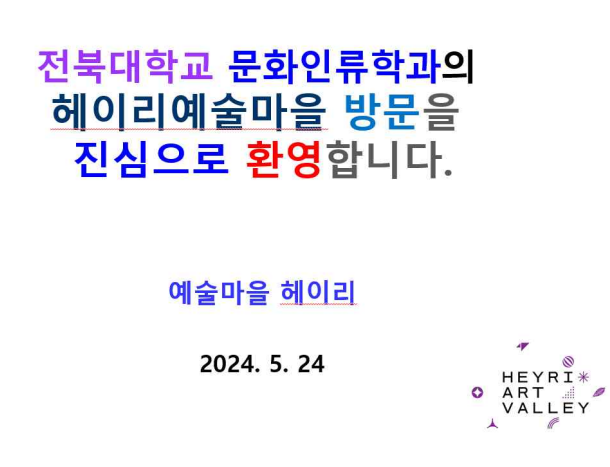
□ 해외공동연구프로그램_총서발간
- 해외공동연구 프로그램은 해외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 다양한 문화적,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의 폭과 깊이의 확장과 다각적 접근을 통한 연구결과 도출
- 다국적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학술 교류와 연구 협력의 기회를 확장하는 기반 마련
- 공동연구를 통해 나온 연구 성과를 공동저서로 발간

□ 전북대 대학원교학부 BK혁신팀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 활용
- '사제동행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도교수와 지도제자가 함께 심층적인 논문연구지도가 이루어짐. 대학원생들은 각자 연구하고 있는 논문주제발표와 함께 동료 연구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며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구방법론에 접근함. 이를 통해 연구의 사회적 및 학문적 네트워크를 형성
- 대학원교학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논문글쓰기, 연구방법론 강좌 등의 학술능력 함양 프로그램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RA(연구보조원 지원, 김 희, 및 TA(강의 보조원 지원, 김 희, 정 민) 지원 프로그램 등에도 적극 참여함
- 언어능력향상교육 : 매학기 진행 중인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회화 강좌에 유학생인 호 (박사과정), 진 (박사과정) 등이 참여하여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연구의 질을 높임

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 추진

(1) 이론·현장 실습 강화를 위해 현장전문가의 강의 확대

□ 전문가 특강 <헤이리 예술마을 현장 및 문화전략>
- 강 사 : 이 섭 (유원대학교 교수. 박사)
- 일 시 : 2024년 5월 24일
-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예술마을의 초창기 멤버이자 현재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 섭 교수를 초빙하여 전문가 강연을 진행. 이 섭 교수는 강연을 통해 헤이리 마을에 대한 현장 소개와 그 문화 전략을 설명. 헤이리 마을과 같은 문화 단지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의 지적과 함께,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이 늘어나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줄 수 있는 이점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미래의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함



<헤이리 예술마을 특강 자료>



<헤이리 예술마을 강의 사진>

□ 전문가 특강 <국립중앙박물관과 학예연구사>

- 강　　사 : 정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실 학예연구사)
- 일　　시 : 2024년 5월 25일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정　　연구원을 초빙하여 진행. 고고학, 문화인류학 대학원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 학예연구원에 대한 업무 및 취업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 학예연구원으로 전시를 맡은 경험, 해외 전시, 박물관 행정업무 등 학예연구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소개함. 정현 연구원은 자신이 맡았던 업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은 이론과 실무의 연결을 이해하게 됨. 이는 고고학과 문화인류학의 이론적 연구를 넘어 실제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연구와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또한 연구원 자신의 취업 경험과 현재 취업 조건을 비료해, 대학원생들이 석사 과정 이후 학예연구원으로 취업하기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한 구체적 조언을 해줌. 이 특강은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특강에서 제시된 취업준비 방법은 대학원생들에게 자기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박물관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위한 학습 계획과 실습 정보 제공. 현장의 전문가 역할 수행에 대한 설명은 대학원생들에게 직업적 자부심과 전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동기 부여와 경력 개발에 대한 비전을 주었다고 평가됨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강의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강의 사진>

나. 산업 ·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

□ 본 교육연구단은 BK21 4단계 사업을 수행하면서 경제구조 변화, 일자리 악화, 인구구조급변, 양극화, 환경악화, 저성장의 지역 위기 등 지역사회 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

□ BK21 4단계에서 제시한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실적 9개 분야 중 본 교육연구단은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거버넌스/플랫폼 구축(거버넌스 구축)', '미래산업·사회의 각종 이슈, 갈등 및 글로벌 난제 대응 및 해결 방안 도출(미래/글로벌 대응)', '국가/지방정부 공공정책/운영에의 반영을 통해 산업·사회 발전 기여(정책 기여)', '지역사회의 특화된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여 차별화된 지역발전에 기여(지역특화)', '공공사회/초중등교육/교양서 저술/온라인 소통/연구 윤리 활동을 통해 학문의 개방화와 대중화 기여(학문의 개방화와 대중화)' 에 해당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

1) 산업 · 사회 문제 해결 관련 교육프로그램 구성의 기본 방향

가) 지역문화 생태 연구와 거버넌스를 통한 산업·사회 발전

- 본 교육연구단은 지방을 인류세의 위기를 극복하는 장소로 바라보고 생물문화다양성의 주체적인 장소로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관점과 초점을 구체화함
- 지역 위기의 본질을 재조명하고, 미래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이를 극복할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성공적인 거버넌스 구축
- 지역문화전문가 양성 과정을 재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진출 인력에게도 개방해, 산학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생물문화다양성 연구 결과를 지자체 정책에 반영
- 이를 통해 지역 산업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냄
- 지역의 문화생태 변천 과정을 연구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전문역량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맞춤형 역량을 강화

나) 지방 위기 극복과 미래 구축 방안의 모색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자원의 활용 방안을 모색.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 마련
- 지연의 전통적인 자연 자원 관리 지식을 환경문제 해결과 접목해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모델을 제시
- 지역의 생활양식과 생산, 소비 행동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요인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모델로 전환하는 방안 제시
- 지역경제와 생태적 가치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지역 특유의 자연과 지역에 뿌리를 둔 문화를 창출하는 프로그램 제안

다) 기존 교과목 프로그램과 비교과과목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

- 교과목과 비교과과목을 지역 문화전문가를 양성하던 교육연구단의 기존 성과를 이어감
- 연계 학습 프로그램 설계 : 교과목과 비교과과목 학습 주제를 연계하여 이론과 실습을 연결

- 맞춤 멘토링 및 튜터링 :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이 비교과과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각자의 연구 주제에 맞게 지도. 특히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에 학생 참여를 독려하여 현장 실습을 통해 정규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비교과과정 학습으로 보충

2)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실적

가) 대학원생의 연구과제 참여 및 현장 조사 실습을 통한 교육활동

□ 「대전광역시 민선8기 공약 2-13세 아동의 미래 희망 성장사다리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과제 참여 (박사과정 권 지, 2023.06.~11.)

- 내용 및 의의

대전광역시 아동 돌봄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현 정책 내에서 포섭되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양육자와 돌봄 기관의 구체적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돌봄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 중요한 기초 연구. 국내외 선진 사례를 검토하여 글로벌한 시각에서 대전시의 돌봄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 데이터를 제공

• 대전광역시 내 다양한 돌봄 기관과 돌봄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전문가 자문을 포함한 심층적 조사 과정을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기초 작업을 수행 • 지자체 돌봄 정책의 일관성과 협력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거버넌스 구축
• 국내외 선진지역의 돌봄 지원 사례 검토. 글로벌 돌봄 제도와의 비교·대조를 시도, 이를 통해 대전시 돌봄 정책의 장기적 발전 방향 제시 • 미래 사회 돌봄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자료 마련	⇨ 미래/글로벌 대응
• 실태조사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발굴,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돌봄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제공 • 돌봄 친화적 정책 수립과 지자체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 마련, 정책적 기여도 높음	⇨ 정책 기여
•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춰 돌봄 실태와 문제 분석, 지역 특화된 돌봄 지원 방안 도출 • 지역사회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 개발에 기여	⇨ 지역특화

□ 「전북문화관광재단 : 전북 문화예술교육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과제 참여 (박사과정 이우, 2023.09.~12.)

- 내용 및 의의

본 연구과제는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방향성을 도출하여 지역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에 기여. 특히 지역 기반 조례 제정과 과제 수행을 통해 얻은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정책적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성과 분석, 광역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사업 방향성 제시	⇨ 거버넌스 구축

• 전북 문화예술교육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지역 센터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됨		
•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류사업 제한 등 외부적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분석, 전북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사업 방향 제시 •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 발전과 외부 변화 대응력을 향상 방안 제시	⇨	미래/글로벌 대응
• 전라북도는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 따라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강화함 • 해당 연구과제는 이러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정책 기여도를 높임 • 향후 문화예술교육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업과 정책 방향 제안	⇨	정책 기여
• 전라북도 지역에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프로그램 성과 진단 • 지역의 문화적 요구와 상황에 맞는 사업 방향 도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기반 마련	⇨	지역특화

□ 「고창문화관광재단 : 고창 문화예술인 인문사전 용역」 연구과제 참여 (박사과정 김 희, 2024.05.~10.)

- 내용 및 의의

본 연구과제는 고창군 문화예술인 DB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예술인 진흥을 위한 정책적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고창군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강화. 구술기록을 통한 원로예술인의 생애사 및 예술 활동 자료화를 통해 지역 예술사의 연속성을 보존하고 고창군의 문화적 자산을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고창군 문화예술인 구술 기록과 자료 체계적 수집 및 DB 구축. 지역 문화예술인 정보를 통합하고 고창군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예술인을 연계하는 기초 데이터 마련 • 향후 예술인 지원 및 문화 사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기여 가능성 높음	⇨	거버넌스 구축
• 구술 채록을 통한 자료화 작업은 고창군 문화예술인 구술사와 예술 활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추후 고창군의 문화유산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학문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학문의 개방화/대중화
• 고창군 고유한 문화 자산과 예술적 역량 파악. 이를 통해 지역 특화된 예술 자원 DB 구축. 고창군 문화예술 고유성과 정체성 강화	⇨	지역특화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세부 계획 수립 연구」 연구과제 참여 (박사과정 서 임, 이 우, 석사과정 김 람, 2022.12.~2023.10.)

- 내용 및 의의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국내외 디자인 자료 현황과 관련 법률을 심층 분석하여 소장품 확보와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함.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박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글로벌 디자인 동향과 관련 법률을 반영하여 국제적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운영 체계를 마련. 이를 통해 디자인의 창의적 가치를 확산하고 박물관이 지역사회와 글로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함

•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자료 확보와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국내외 디자인 분야 전문가 및 공공기관과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마련 • 디자인 관련 소장자료 확보와 박물관 운영을 위한 자문과 협력을 통해 학문적 · 행정적 자원을 통합하는 거버넌스 형성	⇨	거버넌스 구축
• 디자인 분야의 글로벌 경향과 관련 법률 검토, 향후 국제적 협력과 대응이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국립디자인박물관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	⇨	미래/글로벌 대응
• 국내외 소장자료 관리체계와 관련 법률 분석, 디자인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법적 · 행정적 근거 마련 • 국립디자인박물관 장기 운영계획 정책적 기틀을 다질 수 있게 기여. 향후 국내 디자인 자료 보존 및 활용 정책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제시	⇨	정책 기여

□ 「한국연구재단 오향이 살아 숨 쉬는 인문도시 정읍」 연구과제 참여 (박사과정 서 임, 석사과정 김 람, 2023.07.~2024.06.)

- 내용 및 의의

정읍시 유형무형유산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지역 역사와 문화를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읍의 인문도시브랜드를 강화. 정읍 무성서원과 선사시대 유물이라는 고유한 역사 자산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이를 통해 정읍시가 가진 인문학적 유산이 대중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나아가 본 프로젝트는 정읍의 인문 자산이 지역사회와 지역 정체성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글로벌 맥락 속에서 재조명함

• 정읍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정읍시립박물관과 지역 교육기관이 연계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거버넌스 구축
•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확장	⇨	미래/글로벌 대응
• 정읍만의 인문학적 자산을 재해석하고 시민 자긍심을 강화하여 인문도시 정읍이라는 브랜드를 강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성 제시 • 지역 문화유산과 인문학적 자산을 바탕으로 한 지역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시사점 제공	⇨	정책 기여
• 정읍시만이 지닌 고유한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 • 정읍만의 유산을 발굴하고 지역 정체성 강화, 인문학적 자산이 풍부한 정읍의 특화된 지역 브랜드 확립	⇨	지역특화

• 초등학생과 학부모,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문화유산을 대중과 청소년에게 친숙하게 소개, 인문학적 지식의 대중화. 지역 인문학 자산의 학문적 가치를 일반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	⇨	학문의 개방화/대중화

□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라북도 인권 역사 현장 발굴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연구」 연구과제 참여 (박사과정 김 희, 2023.07.~10.)

- 내용 및 의의

전라북도 내 인권 유산 발굴과 체계적 조사를 통해 인권 의식 향상과 지역 인권 유산의 가치 보존을 목표로 함. 조사된 인권 현장을 기반으로 다크투어리즘 코스를 개발하여 인권의 역사를 관광과 접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권 의식 교육과 관광 산업 간의 새로운 융합 모델을 제시. 이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인권 유산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지역 인권 유산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

• 전라북도 인권 역사 현장을 조사하여 지역사회와 정부 기관 간 협력적 관계 구축, 인권 의식을 높이는 거버넌스 마련 • 지역 인권 유산 보호, 교육적 활용을 위한 협력 체계 기반 제공	⇨	거버넌스 구축
• 인권 유산 발굴과 다크투어리즘 기반 관광코스 개발을 통해 인권 문제와 관련된 역사 현장을 미래세대와 글로벌 커뮤니티에 전달하는 방안 마련 •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며 인권 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 제공	⇨	미래/글로벌 대응
• 전라북도 지역 내 인권 현장을 조사하여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전라북도 인권 정책과 문화유산 보존 정책에 실질적 기여 • 다크투어리즘 관광코스 개발을 통해 인권 유산을 관광과 연결하여 지역사회의 문화 자산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공	⇨	정책 기여
• 전라북도 인권 현장 50여 곳을 조사하여 지역의 인권 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 지역 특유의 역사적 사건과 인권 문제 조명 • 전라북도 고유의 역사와 인권 관련 자산 발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특화된 인권 유산 활용 방안 마련	⇨	지역특화
• 인권 역사 현장에 대한 정보를 문헌자료, 홈페이지, 신문기사 등을 통해 수집하고 정리하여 일반 대중과 연구자에게 자료 제공 • 인권 유산의 학문적 의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 교육과 의식 확산을 위한 학문 개방화와 대중화 촉진	⇨	학문의 개방화/대중화

□ 「완주군 완주 상운리 유적의 학술자료 제작」 연구과제 참여 (석사과정 치 호, 한 구, 2024.06.~10.)

- 내용 및 의의

완주 상운리 유적을 통해 마한 철기문화 생산과 유통 구조를 복원. 이는 전라북도 마한 사회의 경제적 · 정치적 역량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임. 만경강 권역의 철기 생산과 유통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심화하는 동시에 전라북도와 마한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유산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함

• 전라북도 역사와 마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공 • 전라북도 및 국가 차원의 고대 유물 보존 및 철기문화 연구지원에 필요한 정책적 기반 자료로 기능 • 문화재 보존과 역사 연구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	⇨	정책 기여
• 완주 상운리 유적을 통해 마한의 철기 생산 및 유통 체계를 구체적으로 복원함으로써 전라북도 역사적 자산을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조명 • 전라북도와 마한 지역문화에 특화된 역사 · 문화 연구 중요성 강화, 지역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 증진	⇨	지역특화

나) 국제협력사업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산업 · 사회 문제해결 연구 성과

• 참여교수가 보유한 폭넓은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결하여 다자간 협력 기반 거버넌스 성공 구축 • 각국의 교육기관이 자원을 공유하고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현지 연구와 글로벌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 학술생태계 형성	⇨	거버넌스 구축
• 일본을 비롯한 해외 대학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후 위기, 지역 위기 등 국제적 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층적 시각을 제공하며 참여대학원생들이 글로컬(Glocal)한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도록 지원 • 현지 연구 및 현장경험을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은 지역적 특성을 세계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 이러한 경험은 기후변화와 생물문화다양성 등 다면적이고 복잡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통찰력을 증진시킴 • 참여대학원생들이 학문적 실천적으로 미래의 다양한 사회적 · 산업적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과 경험 제공	⇨	미래/글로벌 대응
• 지역사회 현장 연구를 통해 지역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각 지역의 고유한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교육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은 지역의 문화적 · 생태적 자원과 사회적 구조를 종합적 파악, 특히 생물문화다양성 보존과 같은 지역 고유의 자산이 갖는 잠재력을 지역사회 발전으로 연결하는 데 기여 • 향후 지역사회가 독립적으로 자생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글로벌 과제 해결에도 지역적 특색이 반영될 수 있는 연구 모델 제공	⇨	지역특화

3.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가. 최근 1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표 2-1>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재학생)	2023년 2학기	11	11		22
	2024년 1학기	12	8		20
	계	23	19		42
배출 (졸업생)	2023년 2학기	2	0		2
	2024년 1학기	1	0		1
	계	3	0		3

나.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1) 우수 대학원생 현황

□ 참여대학원생 현황

■ 2023년 2학기

전 공	과 정	이 름
고고학 (9)	석사	이 진(4), 송 범(3), 이 윤(2), 박 연(2), 정 민(2), 차 호(2), 한 구(2), 이 헌(1)
	박사수료	왕 (7)
문화인류학 (11)	석사	김 람(4), 문 오(3)
	박사	김 희(4), 서 임(4), 이 우(4), 권 지(2), 박 숙(2), 호 (2), 진 (1)
	박사수료	유 춘(8), 이 민(7)

■ 2024년 1학기

전 공	과 정	이 름
고고학 (13)	석사	송 범(4), 강 지(4), 박 연(3), 이 윤(3), 정 긘(3), 차 호(3), 한 구(3), 이 헌(2), 신 호(1), 이 후(1), 이 안(1), 조 진(1)
	박사수료	왕 (8)
문화인류학 (8)	석사	문 오(4)
	박사	권 지(3), 박 숙(3), 호 (3), 장 기(3), 김 현(1),
	박사수료	김 희(5), 서 임(5)

□ 본과, 본 대학원 출신 우수 학생 동일 대학원 진학
- 2023년 2학기 : 2명 (석사 1, 박사 1)
- 2024년 1학기 : 4명 (석사 3, 박사 1)

□ 타 대학 및 타 학과 출신 우수 대학원생 확보
- 호아, 신준호

□ 해외유학생 참여 현황
- 2023년 2학기 : 3명 참여(중국 2명, 베트남 1명)
- 2024년 1학기 : 2명 참여(중국 1명, 베트남 1명)

2) 우수 대학원생 지원 현황

가)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강화

□ 장학금 지원
- 2023년 2학기: 지원대학원생 박사과정 7명, 수료생 3명, 석사과정 10명에 대하여 박사과정 160만원, 박사수료 130만원, 석사과정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매달 지원함(단, 학기 중 취업자는 도중 지원 중지)
- 2024년 1학기: 지원대학원생 박사과정 5명, 수료생3명, 석사과정 13명에 대하여 박사과정 160만원, 박사수료 130만원, 석사과정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매달 지원함(단, 학기 중 취업자는 도중 지원 중지)

나) 연구 활동 및 연구질 향상을 위한 지원

- 2023년 2학기: 학술대회 발표 10명 지원, 논문게재 2명 지원, 해외 교육프로그램 1개 진행
- 2024년 1학기: 학술대회 발표 5명 지원, 논문게재 5명 지원, 소모임 11명 지원, 저서 발간 7명 지원, 국내 교육 프로그램 1개 진행, 특강 2회 진행

다) 연구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 지급

□ 연구 활동 실적에 따라 우수 대학원생에게 성과급 지급
- 성과급은 한 학기 동안의 학술실적을 기준으로 교육연구단에서 지정한 성과표 해당 점수 합산액에 비례하여 대학원생에게 2월말, 8월말에 지급
- 2023년 2학기: 참여대학원생 20명에게 총 14,360,000원 지급
- 2024년 1학기: 참여대학원생 21명에게 총 4,970,000원 지급

라) 대학원생 전용 연구 공간 확보

□ 대학원연구실은 논문 작성중인 상주 학생들을 포함하여 독립된 개인 학습공간과 모두가 사용가능한 학습공간을 함께 겸비하고 있으며, 공용 물품 등을 구매하였음
- 고고학 전공생 대학원 연구실 : 인문대 2호관 110호, 12명 사용가능
- 문화인류학 전공생 대학원 연구실 : 인문사회관 527호, 25명 사용가능
- 대학원생 세미나실 : 인문대 2호관 109호

- 고고문화인류학과 자료실 : 인문대 2호관 217호

다. 참여대학원생의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표 2-2> 2024.2월 졸업한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

구 분		졸업 및 취(창)업현황 (단위: 명, %)						취(창)업률(%) (D/C)×100
		졸업자 (G)	비취업자(B)			취(창)업대상자 (C=G-B)	취(창)업자 (D)	
			진학자		입대자			
			국내	국외				
2024년 2월 졸업자	석사	3	1	0	0	2	0	0%
	박사	0			0	0	0	

1) 참여대학원생 취업 및 진학 현황

구 분	성 명	졸업 및 수료 시기	취업 실적 및 활동
진학	진	2023년 1학기 석사 졸업	전북대 일반대학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진학
	김 현	2023년 2학기 석사 졸업	전북대 일반대학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진학
재학 중 취업	이 진	2023년 2학기 중 취업 (석사 4학기)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이 헌	2024년 1학기 중 취업 (석사 2학기)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김 현	2024년 1학기 중 취업 (박사 1학기)	농촌진흥청

3.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가. 참여대학원생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1) 참여대학원생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목록

구분	성명	논문제목	게재정보			저자수
			게재학술지명 (출판사, 학회명)	권(호)	발행일	
논문	서 임	일본 니가타현 청주산업의 전개과정	건지인문학	38	2023.10	1인
논문	이 우	'미치노에키(道の駅)'의 지역 내 역할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과 일본의 고속도로 휴게시설 비교를 중심으로	융합관광콘텐츠 연구	10(1)	2024.02	1인

논문	박 숙	전주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형성과 변화-일제강점기 사진그림엽서 속 경관 이미지를 중심으로	지역과문화	11(1)	2024.03	1인
논문	장 기	20세기 후반 전주지역 제과점의 사회문화적 의미	지역과문화	11(1)	2024.03	1인
논문	김 희	태안 유류피해극복 기념관을 통해 본 집합기억의 구성과 서사적 재현	문화와융합	46(2)	2024.04	1인
논문	서 임	일본 가고시마현(鹿児島県) 소주장(焼酎蔵)의 문화자원화	한국과 세계	6(3)	2024.05	1인
논문	장 기(외1인)	색채를 활용한 일본 가고시마현 지역 활성화 사업의 전개와 의미	지역과문화	11(2)	2024.06	2인

2) 참여대학원생 논문 실적의 우수성

□ 서 임 “일본 니가타현 청주산업의 전개 과정”

- 이 논문은 일본 니가타현의 청주산업을 지역 문화자원으로 활용한 사례를 통해 지역특산품이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모델이 될 수 있음을 탐구한 연구로 청주를 지역 자원으로 보고 이를 활용한 관광 및 문화자원화 전략을 통해 지역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 활용은 생물문화다양성 유지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한 위기 대응 모델로 해석될 수 있다. 논문은 지역 음식과 더불어 발달해 온 술을 지역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역자원으로 보고, 일본 니가타현 청주산업 이해관계자들이 지역특산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청주를 문화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하였다. 니가타현 청주산업 이해관계자들은 주생산자인 주조회사와 이들의 연합체인 주조조합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니가타 청주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주조회사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음식 관광 정책을 수용함에 따라 청주 생산 공간인 양조장이 단순히 술을 생산하는 공간에서 전시와 체험을 매개로 청주 제품과 주조회사 브랜드를 경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방문객들은 양조장에서 주조회사의 청주를 시음하고, 생산 과정을 관람하면서 술의 가치를 경험하는 동시에 설국이자 쌀 원산지라는 니가타현의 지역 이미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은 지역특산품의 상품화가 정교하게 이루어진 곳으로 니가타현의 사례는 한국의 술과 지역특산품을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지역문화자원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탐구하고 한국 특산품을 지역 문화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지방문화 지속가능성 연구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 이 우 “‘미치노에키(道の駅)’의 지역 내 역할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과 일본의 고속도로 휴게시설 비교를 중심으로”

- 참여대학원생 이정우는 일본 내에서 1,209개의 미치노에키가 3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일본 큐슈 일대 6개 미치노에키에 대해 2023년 BK21 해외장기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논문은 당시의 장기연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본 내 미치노에키를 분석한 글이다. 일본의 미치노에키를 단순한 휴게소로 바라보지 않고 지역 관광과 활성화 플랫폼으로 분석하며 이를 통해 한국 고속도로 휴게시설과의 비교를 시도, 국내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한 발전 방향을 탐구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미치노에키를 지역 관광과 활성화의 플랫폼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

와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성 모색 방안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자원의 다양성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논문의 주요한 분석 대상인 미치노에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원으로서 지역사회와 관광을 연계하여 지역 생태 경관과 문화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생물문화다양성을 가진 지방에 주목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본 교육연구단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박 숙 “전주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형성과 변화-일제강점기 사진그림엽서 속 경관 이미지를 중심으로”

- 본 논문은 전주 역사문화자원이 도시의 상징성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석하고 그 문화경관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재구성되고 변모되어 왔는지를 탐구한 것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기의 사진과 그림엽서에 담긴 전주의 다양한 경관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그 시기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식 체계가 경관에 반영되었음을 밝혀낸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이미지는 단순한 장소의 모습이 아닌 전주를 상징하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경관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개인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 복원된 전주의 역사문화자원이 문화행사와 관광 콘텐츠로 활용되는 현황을 통해 전주가 어떻게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재해석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장 기 “20세기 후반 전주지역 제과점의 사회문화적 의미”

- 이 연구는 전주 원도심 제과점을 중심으로 제과문화와 소비문화 변천사를 탐구하며 특정 지역에서 소비 공간이 갖는 문화적 함의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자는 논문을 통해 전주의 제과점이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지역민들의 생활상과 소비문화의 변화를 담고 있는 상징적 공간임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제과점이라는 소비 공간과 당대 시민의 소비 행동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 낸 지역적 문화와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조명하였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부터 1990년대 말까지 전주지역에 유입되고 정착한 제과문화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탐구하여 기존 연구들이 서울 중심으로 다루던 제과 문화를 전주라는 특정 지역 사례로 확장함으로써 소비문화 연구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논문은 제과점이라는 소비 공간을 매개로 전주의 시민들이 부여하는 의미와 인식의 변화를 심층 면담을 통해 탐구함으로써 제과 문화와 소비문화의 관계를 의례와 소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전주 제과문화의 지역적 특수성과 상징성을 구체화하여 한국의 제과문화사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제과점이라는 특정 소비 공간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소비의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는 제과점이라는 장소의 문화적 가치를 탐색함으로써 소비문화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

□ 김 희 “태안 유류피해극복 기념관을 통해 본 집합기억의 구성과 서사적 재현”

- 이 논문은 태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상설전시, 특별전시, 교육활동 등을 통해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를 어떻게 서사화하여 재현하고 있는지 분석한 연구이다. 먼저 태안 기념관이 재난에 대한 집합기억을 구성하고 이를 재현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사고에 대한 새로운 집합기억을 형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계승의 서사를 지향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재난의 기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기념관이 사고에 대한 공감과 기억의 전파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념관이 재난 서사를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장하여 교육적 기능과 지역 활성화를 실현하고 있음을 조명하였다. 이는 기념관이 단순히 전시를 통한 재난 기억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관람객의 참여를 이끌고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자는 기념관이 재난의 서사적 재현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난 기억을 재현하고 계승하는 과정이 단순한 기록이 아닌 재난을 극복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미래 세

대에 전파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태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재난 기억을 보존하고 확산하는 기념관의 역할을 넘어 사회적 교육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함을 밝혔다.

□ 서 임 “일본 가고시마현(鹿児島県) 소주장(焼酎蔵)의 문화자원화”

- 『한국과 세계』는 한국국회학회에서 발간하는 범학문적 융합학문을 지향하는 KCI 등재 학술지이다. 본 연구는 오늘날 안동 소주 이해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있는 일본 가고시마현을 대상으로, 이 지역이 고구마 소주의 대표적인 산지로 자리매김하기까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검토하고, 지역특산품을 생산하는 공간인 소주 공장의 가치 및 역할과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가고시마현 고구마 소주가 군비 근대화 과정에서 양산되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본격소주’라고 불릴 만큼 사회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주 공장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응축된 소주 공장이 산업유산이자 일시적 의례 공간이 되면서 지역 활성화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단일한 양조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에서 나아가 지역 내 복수의 소주 공장을 연계한 소주장 투어리즘 사례를 검토하였고, 소주라는 물질 자체의 제조 방법에서 나아가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 증류식 소주 산업 관계자들이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양조장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장 기(공저) “색채를 활용한 일본 가고시마현 지역 활성화 사업의 전개와 의미”

- 이 논문은 일본 가고시마현이 지역의 상징색으로 검은색을 내세워 문화자원을 상품화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먼저 일본에서 검은색이 전통적으로 긍정적 의미를 지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고시마가 이를 지역 상징색으로 삼은 배경과 과정을 살피며 색채가 지역 정체성 형성과 자원화 과정에서 어떤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지를 심층적으로 규명한다. 또한 이 논문은 가고시마는 블랙 캠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색채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의 다각적 측면을 조명하는데 이를 통해 특정 색채가 지역의 개성과 차별성을 부각하거나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産), 행정(官), 학계(學)가 협력하여 지역 상징색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지 분석함으로써 산관학 협력의 구체적 성과와 과제를 조명하고 지역 활성화 정책에서 산관학 협력의 중요성과 실천적 과정을 제시하였다.

3) 참여대학원생 저서

성명	출판정보				저자수
	서적명	ISBN 발간등록번호	출판일	출판사	
임 택/ 카 로 이 에/ 조 실/양 영/서 임/이 우/권 지/장 기/김 람/ 정 민/한 구	『일본 가고시마 지역연구 문화유산과 지역 활성화』	979-11-94198-21-5	2024.08.	신아출판사	11명

4) 저서의 우수성

□ ‘

2024,『일본 가고시마 지역연구 문화유산과 지역 활성화』, 신아출판사.

- 본 저서는 본 교육연구단이 일본가고시마 대학과 함께 진행한 국제협력 교육프로그램의 결과물로 2024년 1월 가고시마 현지에서의 공동조사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 저서는 발간되는 과정 자체가 교육연구단 활동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지역(현장)의 문제와 자원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까지의 주제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저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Ⅰ. 총론, 가고시마시 가고시마현: 일본 열도의 변경에 위치한 선진지역 (임 택)
Ⅱ. 지역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
Ⅱ-1. 일본 가고시마현 소주장 활용에 관한 연구
Ⅱ-2. 일본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미치노에키의 지역 내 역할,
Ⅱ-3. 프로스포츠 문화에서 지방 정체성 찾기:가고시마 유타이티드 FC를 사례로

Ⅲ. 문화유산의 기능과 활용
Ⅲ-1. 생물문화다양성 보존을 위한 지역 자연사박물관의 역할과 방향: 일본 가고시카현 사례를 중심으로
Ⅲ-2. 사쓰난 제도의 민속 문화에 대한 일고찰
Ⅲ-3. 일본 가고시마 사례를 통해 본 지속 가능한 매장유산 보존방안 연구

Ⅳ. 이미지와 지역활성화
Ⅳ-1. 가고시마는 블랙: 색채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의 전개와 의미
Ⅳ-2. 역사적 인물의 상징과 재현에 의한 지역이미지 만들기: 가고시마의 사이고 다카모리 이미지를 중심으로
Ⅳ-3.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활용사업: 가고시마성을 중심으로

위에서 있듯이, 총론인 1장은 가고시마 지역의 자연 지리 역사적 배경과 산업 경제 문화적 맥락을 종합하면서, ‘생물문화다양성’ 개념의 기반을 정리하였다. 2장의 세 편의 글은 소주, 지역특산물, 축구라는 지역자원의 생산과 활용을 분석하였으며, 3장의 글들은 문화유산에 초점을 맞추어 박물관, 도서지역의 생물문화다양성, 매장문화의 지역 정체성 사이의 관계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4장의 3개의 글은 색, 역사적 인물,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정책적 실천을 다루었다.

나.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1)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발표 실적 목록

성명	학술회의명	개최기간	주관 기관	발표논문	발표자수
권 지	다중격차와 이행의 시대 :여성노동의 현실, 쟁점, 전망	2023. 11.11	한국 서울시립대학교	도시 공간 재현에서의 성매매집결지 위치와 재현 양상: 성매매집결지가 분포한 대전 원도심 지역을 사례로	1인

김 ·희	지역학과 지방 문화원의 미래	2023.10.20.~ 10.21.	한국문화원연합회 부설 정책연구소·한국지 역학연구소/한국 지역문화학회	상품화된 ‘집밥’ 경험과 성역할 관념 생산의 관계 : 전주시 거주 20대 1인가구를 중심으로	1인
김 람	실행중인 인류학	2023. 11.10.~ 11.11.	한국문화인류학회	전라감영 복원 과정의 의미 고찰	1인
문 오	’소멸-생성’: 다중적인 위기 속 이어가는 삶	2024. 02.02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국내 청소년 성소수자 인정 정치의 역사	1인
서 임	실행중인 인류학	2023. 11.10. ~ 11.11.	한국문화인류학회	전주 ‘우리술교육’ 수강생들을 통해 본 전통주 제조 기술의 보급과 그 숙련과정	1인
서 임	k-콘텐츠 산업의 다양화와 일상화	2023. 11.17.	한국문화경제학회	축제 포스터를 통해 본 문화자원으로서의 술과 그 활용사례	1인
이 민	실행 중인 인류학	2023. 11.10. ~ 11.11.	한국문화인류학회	폐기물 처리의 사회적 과정: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밀집 지역 사례 연구	1인
이 우	지역학과 지방 문화원의 미래	2023. 10.20. ~ 10.21.	한국문화원연합회 부설 정책연구소·한국지 역학연구소/한국 지역문화학회	일본의 지역 활성화 사례 고찰 : ‘미치노에키 타루미즈하마비라(道の駅 たるみずはまびら)’를 중심으로	1인
이 우	실행 중인 인류학	2023. 11.10. ~ 11.11.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과 일본의 고속도로 휴게시설과 일본 국도의 미치노에키(道の駅)	1인
이 우	k-콘텐츠 산업의 다양화와 일상화	2023. 11.17.	한국문화경제학회	온라인 축제 등장 이후 축제의 변화와 K축제: 김제지평선축제를 중심으로	1인
강 지	지역문화의 다양성· 고유성	2024. 05.24 ~ 05.25	한국지역문화학회	고고유적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의 발전 방안 연구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를 중심으로-	1인
박 연	지역문화의 다양성· 고유성	2024. 05.24 ~ 05.25	한국지역문화학회	섬진강 구석기유적 문화층의 성격	1인
서 임	지역문화의 다양성· 고유성	2024. 05.24 ~ 05.25	한국지역문화학회	전주모주의 관광상품화와 의미변화에 대한 연구	1인

정 민	문화도시와 문화콘텐츠	2024. 03.22. ~ 03.23	공주문화관광재단 , 문화콘텐츠 관련 10개 학회	'일본유산(Japan Heritage)'의 문화 콘텐츠 활용과 체험 양상 -가고시마성(鹿児島城)을 중심으로-	2인
한 구	문화도시와 문화콘텐츠	2024. 03.22. ~ 03.23	공주문화관광재단 , 문화콘텐츠 관련 10개 학회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인

2) 학술대회 발표의 우수성

□ 권 지 "도시 공간 재현에서의 성매매집결지 위치와 재현 양상: 성매매집결지가 분포한 대전 원도심 지역을 사례로"

- 2023년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는 '다중격차와 이행의 시대: 여성노동의 현실, 쟁점, 전망'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변화하는 여성 노동의 조건과 현실 속에서 페미니스트 노동 연구와 실천의 새로운 쟁점들과 관점,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탐색하는 학술대회에서 권 지 참여대학원생은 [세션8. 자유주제2]에서 "도시 공간 재현에서의 성매매집결지 위치와 재현양상: 성매매집결지가 분포한 대전 원도심 지역을 사례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의 목적은 도시의 특정 공간을 규정하는 의미 생산에 관여한 재현 체계 및 그에 따른 양상을 살펴, 공간 재현이 은폐한 성매매집결지를 재조명하는데 있었다. 연구를 통해 지자체의 도시 정책이 원도심 지역 재생에 집중함에 따라 펼쳐진 문화적 재생사업에 성매매집결지 정체성이 어떻게 배치되고, 또한 집결지와 관계한 존재는 어떤 위치에 놓였는가에 대한 비판적 함의를 제시했다. 본 발표는 지배적인 원도심 공간 재현의 의미망에 포섭되지 못한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가시화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공간 재현에 영향을 끼친 사회적 관계 및 헤게모니의 작동을 살펴 공간 재현의 정치를 탐구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 김 희 "상품화된 '집밥' 경험과 성역할 관념 생산의 관계: 전주시 거주 20대 1인가구를 중심으로"

- 김 희 참여대학원생은 한국지역문화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인 "지역학과 지방문화원의 미래"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본 학술대회는 지방문화원이 지역학의 중심 거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능성과 역할, 지역문화연구의 신흥 기회와 도전, 동해시 지역발전 방안, 지역문화 관련 다양한 자유주제로 구성되어, 지역학 연구와 지방문화원의 실천적 방향을 다각도로 조명하였다. 발표자는 '상품화된 집밥 경험과 성역할 관념 생산의 관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집밥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전파되는 성역할과 가족의 이미지,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성역할 관념을 탐구하였다. 나아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집밥 상품화가 젠더 및 가족 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상품화된 집밥이 대중에게 어떤 이상화된 역할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의 재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 김 람 "전라감영 복원 과정의 의미 고찰"

- 본 참여대학원생은 한국문화인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세션 <문화자원과 지역연구>에 참여하여 "전라감영 복원 과정의 의미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10월 복원을 일부 마친 전라감영을 대상으로 복원이 시작된 계기와 과정을 둘러싼 여러 담론들을 분석하고, 어떠한 계기와 연유로 인하여 복원이 진행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전라감영에 대한 기존 연구가

복원 전 사업의 방향성을 위한 당위성 확보나 활용 방안에만 초점을 맞추던 반면 발표자가 살펴본 복원 과정은 한국 사회에서 지역 정체성을 위한 정책에서 특정 내러티브가 선택된 결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전라감영 복원 과정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관련 프로젝트들이 가지는 내러티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보편적인 연구로 확장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문 오 "국내 청소년 성소수자 인정 정치의 역사"

- 문 오 참여대학원생은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국내 청소년 성소수자 인정 정치의 역사"를 주제로 발표하며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권리를 보장받는 과정의 역사와 그 정치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이 학술대회는 연세대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학과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사회적 쟁점과 문제를 탐구하는 자리로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해석을 깊이 있게 다루는 발표자들 간의 활발한 토론이 특징이다. 특히 해당 대학원생의 발표는 오늘날 청소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권리 인정 문제를 분석하며 과거부터 이어져 온 성소수자 인정 정치의 변화와 그 역사적 맥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발표자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인정 정치가 어떤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고 청소년이라는 특수성과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권리 인정의 이슈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질적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논의하였다. 이 발표는 청소년 성소수자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그동안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던 이 주제를 학문적 논의의 장에 끌어올림으로써 사회적 권리와 정체성 인정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또한 성소수자와 청소년이라는 중첩된 정체성의 이해를 확장하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법적, 사회적 변화를 분석하여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 서 임 "전주 '우리술교육' 수강생들을 통해 본 전통주 제조 기술의 보급과 그 숙련과정"

- 이 발표는 한국문화인류학회 추계학술대회의 <문화자원과 지역연구> 세션에서 진행되었으며 전통주 제조 기술과 지식이 지역민들에게 교육을 통해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구로서 그동안 비과학적 지식으로 폄하되며 사라져 가는 전통주 제조 기술을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전승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이로써 전통 지식의 현대적 의미와 지속가능성을 조명하였고 이를 통해 전통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닌 지역민들에게 중요한 문화적 자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했다. 발표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우리술학교'를 사례로 수강생들이 조선 시대 문헌에 기록된 다양한 전통주를 실습하며 경험적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검토하여 교육을 통한 전통 지식의 재구성과 계승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문헌 기록 이상의 지식이 현장 교육을 통해 전승되며, 전통 지식이 경험과 실습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수강생들이 거주지의 특산물을 부재료로 활용해 전통주를 빚음으로써 지역 고유의 맛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교류와 평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술학교'가 단순히 전통주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맛의 다양성과 지역 특색을 담아내는 중요한 경로가 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 발표는 전통주 교육이 전통 지식의 전승과 지역문화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 유대 강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보여주며 지역문화자원으로서 전통주가 가진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서 임 "축제 포스터를 통해 본 문화자원으로서의 술과 그 활용 사례"

- 한국문화경제학회에서 주관한 <k-콘텐츠산업의 다양화와 일상화> 학술대회는 국내의 문화, 예술, 경제, 행정 부분 연구자들이 학제적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과 경제의 상호 관련성을 K-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검토한 자리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음식은 주요한 방문 동기 중 하나로, 장소에 대한 기

억과 애착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K푸드와 더불어 페어링할 수 있는 K-술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를 주제로 한 이벤트성 행사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발표는 2020년 이후 전라도 지역 5개 지자체에서 술을 주제로 진행된 이벤트성 행사의 포스터 분석을 통해 방문객들이 지각하는 이미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디지털 환경이 발달하면서 각 지자체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데, 상징적 대중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전자포스터는 이미지를 통해 지역문화를 외부로 확산시키고 관광 동기를 촉진하는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연구 결과 지자체별 포스터의 표현에 따라 술이라는 문화자원이 기존 지역 이미지에 포섭되기도 하고, 새로운 지역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관람객들의 지역 이미지 재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 이 민 “폐기물 처리의 사회적 과정: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밀집 지역 사례 연구”

- 한국문화인류학회에서 발표된 “폐기물 처리의 사회적 과정: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밀집 지역 사례 연구”는 폐기물 처리 과정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인류세 논의를 일상생활과 연결시키며 재해석하고자 한 연구로서 기존 연구들이 간과했던 폐기물 처리의 사회문화적 중요성을 조명함으로써 환경문제와 일상생활의 연결성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일상의 소비와 폐기물 배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발표자는 인류세 논의가 자본주의 비판이라는 거시 담론에 그치는 대신, 시민 일상과 현실적 과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을 강조하며, 인류세 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지구적 위기와 자원 낭비,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구체적인 도시 생활 환경과 연결시킴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밀집 지역을 사례로 지역적 특수성과 거주민의 경험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도시 내 특정 지역이 어떻게 환경적 부담을 겪고, 이에 따른 사회적 구조와 주민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제공했다.

□ 이 우 “일본의 지역 활성화 사례 고찰 : ‘미치노에키 타루미즈하마비라(道の駅 たるみずはまびら)’를 중심으로”

- 이 연구는 한국지역문화학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일본 미치노에키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운영 방식과 구조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점에서 학술적 의의와 우수성을 지닌다. 기존의 미치노에키 연구들이 주로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한 제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이 연구는 일본 가고시마현 ‘미치노에키 타루미즈하마비라’를 사례로 실제 운영 방식과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는 단순 사례 분석을 넘어서 미치노에키의 구체적 기능과 현지에서의 사회적 역할을 조명하여 미치노에키가 지역사회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로 한국의 지역 활성화 및 관광 개발 연구에 현실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가치를 가진다.

□ 이 우 “한국과 일본의 고속도로 휴게시설과 일본 국도의 미치노에키(道の駅)”

- 본 연구는 일본의 미치노에키를 보다 심층적으로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한 것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에서 발표된 글이다. 연구자는 단순히 미치노에키의 풍경, 특징, 운영 방식, 제도적 측면을 묘사하는 것만으로는 그 본질적 역할과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를 출발했다. 기존 미치노에키를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시설과 비교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를 통해서는 미치노에키의 고유한 기능과 가치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본 발표는 미치노에키가 한국의 휴게시설과 본질적으로 다른 구조와 운영 철학을 지니고 있음을 논의하고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미치노에키의 역할과 지역 활성화에서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단순 비교를 넘어 미치노에키의 독자적

특성을 조명하고자 한 의미있는 연구이다.

□ 이 우 “온라인 축제 등장 이후 축제의 변화와 K축제: 김제지평선축제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한국문화경제학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이 연구는 코로나19 전후 축제의 변화를 김제지평선축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대면 축제가 재개된 현재 시점에서 온라인 축제가 축제 기획 및 운영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축제 기획자들은 팬데믹 이전의 축제 방식으로의 완전한 회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축제의 형태와 운영 방식이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 축제 운영의 변화를 통해 K콘텐츠로서 K축제의 세계화와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며 K콘텐츠의 영역을 K축제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특히 K축제가 K콘텐츠의 집약체로서 지역축제의 차별성과 콘텐츠 발전 방안을 탐구하고 국제적 확장성을 갖춘 축제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학술적 의의를 두고 있다.

□ 강 `지 “고고유적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의 발전 방안 연구-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 를 중심으로-”
- 본 발표는 참여대학원생이 한국지역문화학회에서 발표하며 우수논문 장려상을 수상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고고유적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발전 가능성을 탐구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대중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융합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발표자는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고유적이 교육적, 경험적 가치로 전환되는 과정을 심층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고고학적 유산을 단순한 과거의 유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의 역사적 인식과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법을 제안한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 박 연 “섬진강 구석기 유적 문화층의 성격”
- 본 연구는 한국지역문화학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섬진강 유역의 구석기 유적이 지닌 고고학적 중요성을 탐구하고 해당 유적의 문화층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구석기시대 인간 활동의 흔적을 밝히고자 한 연구이다. 섬진강 유역에 남겨진 다양한 유물과 지층을 분석하여 구석기시대 인간 생활의 구체적 흔적과 환경적 조건, 사회적 활동 양상을 재구성함으로써 한국 구석기문화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특히 문화층의 구조적 특징과 유물의 분포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인간들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고 자원을 활용하였는지 또 어떠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였는지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이를 통해 발표자는 섬진강 구석기 유적이 단순히 특정 시대의 유물 집합이 아닌 구석기시대 인간 생활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임을 밝혔다.

□ 서 임 “전주모주의 관광상품화와 의미변화에 대한 연구 ”
- 해당 발표자는 한국지역문화학회에서 ‘전주 모주의 관광상품화와 의미변화에 대한 연구’를 발표해 신진연구자 부문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연구는 전주 전통 술인 모주를 대상으로 지역 음식문화가 관광상품으로서 어떠한 의미변화를 겪고 있는지 분석하고 지역 음식의 고유성이 방문객들에게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고찰했다. 연구자는 전주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소비되던 모주의 관광상품화를 통해 지역민의 음식 관행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모주가 가진 전통적 이미지와 관광 상품으로서 새롭게 부여된 이미지 간의 경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문화자원이 관광산업과 만나면서 겪는 정체성의 변화 및 지역민과 방문객의 인식이 충돌하거나 융합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정 민 “ ‘일본유산’ 의 문화콘텐츠 활용과 체험 양상 -가고시마성(鹿児島城)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충남 공주시에서 개최된 2024 문화콘텐츠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해당 대학원생은 일본유산(Japan Heritage) 사례 중 가고시마성의 문화콘텐츠 활용과 체험 양상을 분석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방안을 탐구했다. 연구자는 BK21 국제협력사업 가고시마 해외연수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가고시마성의 누문 복원과 지역민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중심으로 한 사례를 통해 문화유산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중요한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가고시마성이 지역 랜드마크로 재탄생하면서 문화콘텐츠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방식에 주목했다. 특히 일본 사례를 통해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지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는 점에 대한 분석은 문화유산 활용에 있어 한국 지역사회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문화유산의 체험형 콘텐츠 개발이 지역 활성화와 관광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역민의 정체성 형성과 관광객의 흥미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는 연구라 판단된다.

□ 한 ·구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본 연구는 충남 공주시에서 개최된 2024 문화콘텐츠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해당 대학원생은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발표의 내용은 일본 가고시마현 박물관과 보존 유적을 분석하여 매장 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탐구한 것이다. 연구는 국내 매장 유산의 개발과 보존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현지에서 직접 매장 유산이 보존·활용되는 방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매장 유산 보존에 대한 대안을 제안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매장 유산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활용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이 상충할 수 있는 국내 사례에서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면 발굴조사 비용 부담과 같은 국내 매장 유산 관련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매장 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매장 유산이 지닌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자산으로서의 잠재력을 강조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 우수논문상 수상 내역

가)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내역

□ 이 우, ‘2023 한국지역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장려상 수상
- 미치노에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일본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미치노에키 타루미즈하마비라(道の駅 たるみずはまびら)’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해당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터발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 이 우, ‘2023 한국문화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 포스터발표 장려상 수상
- 코로나19의 전후 축제의 모습을 김제지평선축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를 통해 K콘텐츠의 장르를 K축제까지 넓히고, K축제는 K콘텐츠가 집약된 하나의 형태를 주장함과 동시에 K축제의 세계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해당 발표를 통해 포스터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 한· 구, ‘2024 문화콘텐츠 연합학술대회 ’ 우수 포스터 논문상 수상
- 문화콘텐츠학회 연합 학술대회에서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가고시마현 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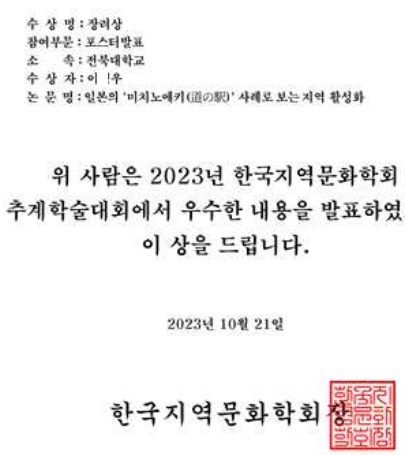
문화재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포스터발표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일본 가고시마의 매장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국내의 매장유산 활용에 제언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수 포스터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 서 임, ‘2024 한국지역문화학회 춘계 학술대회 ’ 우수 논문상 수상

- 전주모주는 전주의 대표적인 지역술로 2000년대 이후 정부 정책 사업의 지원을 통해 본격적으로 관광 상품화되었다. 오늘날 전주한옥마을 태조로와 은행로, 한지길 등 주요 관광 도로에서 판매되면서 관광객들은 전주의 지역특산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 지역민들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전주모주를 소비했고, 오늘날과 같이 흑설탕과 한약재를 넣고 술 지게미를 끓이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은관광을 매개로 한 지역 활성화 과정에서 지역문화와 관광이 경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로 지역민이 기억하는 모주의 시대별 의미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고, 관광상품화 이후 나타난 이미지 경합에 대해 검토하였다.

□ 강 지, ‘2024 한국지역문화학회 춘계 학술대회 ’ 우수 포스터 발표 수상

- 고고학 유적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의 발전 방안 연구로 우수논문 장려상을 수상한 것은 문화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우수성을 증명하였다. 먼저 고고학 유적이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닌 교육적 가치 창출이라는 의미에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신창동 타입캡슐을 열어라’ 와 같은 체험프로그램이 문화유산의 보존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유익한 체험으로 다가간다는 가능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자원과 현대적 활용이 융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음을 인정받았다.



상 장

수 상 명 : 장려상
참여부문 : 포스터발표
소 속 : 전북대학교
수 상 자 : 이 ㅣ우
논 문 명 : 일본의 '미치노에키(道の駅)' 사례로 보는 지역 활성화

위 사람은 2023년 한국지역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내용을 발표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21일

한국지역문화학회장

<2023 한국지역문화학회 수상 내용>



KACE
사단법인 한국문화경제학회

2023년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장려상

논문제목 : 온라인 축제 등장 이후 축제의 변화와 K축제:
김제지평선축제를 중심으로

수 상 자 : 이 ㅜ

소속대학 : 전북대학교

위 사람은 2023년 한국문화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한 포스터를 발표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17일

(사)한국문화경제학회장 박 정 수

<2023 한국문화경제학회 수상 내용>



<2024 문화콘텐츠 연합학술대회 수상식 >



<2024 한국지역문화학회 논문우수상 수상 >

4)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능력 역량강화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본 교육연구단은 학술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참여교수나 신진연구인력 간의 공동연구나 논문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연구주제를 정하고 학술대회에 참여해 발표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과정들에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술지에 논문투고, 논문게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세분화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
-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능력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장, 단기 연수프로그램을 활용해 국제적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며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물리적 지원과 응원을 강화할 예정

가) 학위 논문작성 자격 조건 강화

□ 학위 논문작성 자격조건 강화

- 박사학위 취득과 관련하여 전북대 규정(박사학위 취득 실적 논문실적 200%이상)보다 높은 300% 이상을 의무화 함
- 300% 이상의 실적 중 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 200%를 의무화하고 있음

□ 소논문 작성과 논문 투고 적극적 독려

- 교육연구단 내규에 논문 작성 의무조항을 강화
- 내규 중 주요 의무(제6조 ③-1.): 1년 1회 이상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또는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여야 할 의무. 단, 박사과정생은 장학금지원을 받기 시작한 학기로부터 3학기 내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반드시 논문을 게재. 미 이행 시 다음 학기 장학생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박사과정생들의 KCI급 이상 논문 작성 및 투고 적극 독려하였고 투고 시 연구성과급 지급. 연구성과 기준표에 논문투고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향 설정하였으며, 이 기준에 준하여 이 우, 서 임, 장 기, 빅 숙, 김 희, 권 지에게 논문 투고 관련 연구성과금을 학기말에 지급함

나) 연구활동 지원 강화 실적

□ 연구 및 취·창업 프로그램 기획
- 참여 학생들의 연구활동과 취·창업을 위해 교육 연수 프로그램 2회 기획함. 2023년 2학기에 해외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참여학생들이 국제 공동 연구 및 국제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 2024년 1학기에는 취·창업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졸업 이후 학생들이 본인의 연구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본 연구단에서 비전으로 제시하는 분야에 맞춘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기획하여 학생들에게 제공 할 계획

□ 논문 게제 및 학술대회 지원
- 교육연구단에서는 국내외 학술지 게재 지원과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와 관련된 소요비용 및 여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학술대회 발표가 바탕이 되어 다음 학기 논문 투고 및 게제가 이루어짐. 2023년 2학기 학술대회 발표자 10명 중 7명이 2024년 1학기 논문 투고, 그 중 5명 논문 게재로 이어져 지원함
- 학술대회 발표와 논문 게재라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해 교육연구단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학회에 대한 정보를 참여대학원생들에게 전달하고, 석사와 박사가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동 연구를 장려할 계획

□ 소그룹 스터디 활동 지원
- 본 교육연구단은 4~5명의 참여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자체 스터디 모임을 지원(인쇄비, 다과비, 식비 등)하고 있음. 매 학기 초 지원 그룹을 신청 받아 교육연구단의 계획서 평가를 거쳐 학술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모임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짐.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3개의 소그룹을 지원함

□ 연구실적에 따른 장학금 및 성과급 지급 강화
- 한국연구재단의 규정에 따라 석사과정 100만원, 박사과정 160만원(수료생 130만원) 이상을 준수하여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규에 있는 ‘연구 성과급 지급 기준표’에 준하여 매학기 말에 성과급을 지급함
- 2023년 2학기 20명(박사7, 수료3, 석사10)에게 성과급 지급
- 2024년 1학기 21명(박사5, 수료3, 석사15)에게 성과급 지급
- 연구실적에 따라 장학금과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키고, 연구 질 향상에 기여함. 또한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장려하는 시스템을 통해 우수 인재들이 연구 환경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이어가는 환경을 제공함

□ 대학원생 전용 연구실 내 연구 공간 환경개선 강화 실적과 노력
- 대학원생 전용 연구공간으로 고고학, 문화인류학 연구실, 고고문화인류학과 자료실, 세미나실 등 4곳을 확보하여 상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함. 고고학 대학원연구실에는 12명, 인류학 대학원연구실에는 25명이 개별연구공간에서 항시 연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외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여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공간을 마련함
- 연구 환경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구공간 확대와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학원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자 함

다) 비교과활동의 확대와 강화 실적

- 국내외 전문가 초청 특강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 공동연구(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졸업생-대학원생 네트워크 활용) 활성화, 국내외 학술대회 강화
-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BK21 비교과 프로그램 적극 참여
-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창의적 사고 교육, AI 및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 양질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제공 됨
-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일본 가고시마 대학과 국제연구교류로써 이 우 참여대학원생이 참여, 1년 동안 현지 기관과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함
- 헤이리 마을 및 국립민속박물관 답사를 진행하여 참여 학생들에게 예술, 지역 연구, 민속 문화 및 전시에 대한 현장의 경험과 정보를 제공함
- 국립중앙박물관 답사를 통해 국내 박물관의 전시 경향과 연구 내용 및 박물관 관련 진로 설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
- ‘사제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지도교수와 지도학생의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 워크숍에서 학기 중 강의 내용이 아닌 지도학생들의 본인의 학위 논문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연구방법론 체득

□ 국내학술대회 공동 개최 2023년 한국문화인류학회

- 주　　제 : “실행 중인 인류학(Anthrpology in Action)”
- 일　　시 : 2023. 11. 10. ~2023. 11. 11.
- 공동개최 : 한국문화인류학회,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BK21 사업단,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 사업단.
- 학술대회의 중요성: 한국문화인류학회 가을 학술대회는 ‘실행 중인 인류학’이라는 주제로, 문화유산, 지역 사회, 공동체, 대안 실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로 학문적,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 데 의의를 두었음. 전통적 주제와 함께 현대 사회의 주요 쟁점에 대해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특히 문화인류학의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하였음
  참여 학생들은 박물관과 전통 지식 전파(조 실, 장 기, 서``임), 환경 문제와 사회적 과정(이 민), 그리고 지역 생활 거점의 역할(이 ¨우)을 주제로 발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의 연구는 한국 사회와 문화의 구체적인 이슈를 다루며, 전통과 현대적 문제의 접점에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 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참여대학원들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실천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학문적 성과를 사회와 연결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마련됨

- 학술대회 구성 및 내용

참여자	발표 제목
조　실	‘마을박물관’을 바라보는 이중적 관점 : ICOM의 ‘박물관 정의’와 한국 ‘박물관미술관법’ 사이에서
장　기	민속박물관에서 음식전시
이　민	폐기물 처리의 사회적 과정: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밀집 지역 사례 연구
서　임	전주슬로푸드문화원 우리 술 교육을 통해 본 전통 지식 전파의 변이 양상
이　우	일본 ‘미치노에키(道の駅)’의 역할 – 관광 거점과 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4. 신진연구인력 현황 및 실적

가. 신진연구인력 근무 현황

□ 본 교육연구단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2명의 신진연구인력이 근무하였음

이 름	재직기간	전 공	직 위	담당 및 연구 분야
조 실	2020.09 - 2024.08.	문화인류학	계약교수	- 문화인류학 대학원생 담당 - 유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한 지역 및 도시재생 등을 광범위하게 연구
양 영	2023.09 - 현재	문화인류학	박사후연구생	- 고고학 대학원생 담당 - 문화유산, 관광이미지 활용 및 지역활성화에 관한 연구

나. 우수 신진연구인력 지원 내용

□ 안정적 학술 및 연구 활동 보장을 위한 연구 공간 지원
□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성과급 지원 및 학술지 논문 게재료 지원
□ 원활한 연구 활동 및 위기극복 대응 인프라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연구네트워크 제공
□ 전임교원 채용 시 우선권 부여

다. 신진연구인력 연구 실적

1) 논문실적

성명	구분	논문제목	게재정보			저자수
			게재학술지명 (출판사, 학회명)	권-호	발행일	
조 실	등재	스페인 푸솔학교박물관 가례를 통해 본 지역사회 전시 참여 양상과 문화유산의 전승	문화와융합	45-11	2023.11.30	단독
조 실	등재	일본 향토박물관의 지역문화 전시재현과 지역사회 참여 : 지바현 우라야스시향토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58	2024.02.28	단독
양 영	등재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근대문화' 이미지 생산과 기억의 재구성	전북학연구	10	2023.12.31	단독
조 실	등재	생물문화다양성 보존을 위한 지역 자연사박물관의 역할과 방향 : 일본 가고시마현 사례를 중심으로	박물관학보	47	2024.6.30	단독
조 실	등재	색채를 활용한 일본 가고시마현 지역 활성화 사업의 전개와 의미	지역과문화	11- 2	2024.6.30	2인

□ 조 실 "스페인 푸솔학교박물관 가례를 통해 본 지역사회 전시 참여 양상과 문화유산의 전승"
- 논문의 우수성
본 논문은 스페인 푸솔학교박물관의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와 박물관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박물관이 어떻게 지역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기여하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모범사례로 등재된 푸솔학교박물관을 통해 지역사회가 문화유산 전승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있으며, 전시와 유물해석, 무형유산 전승이라는 구체적 관점을 통해 지역민들의 참여 양상을 세밀하게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푸솔학교박물관이 노년층 구술인터뷰를 바탕으로 유물해석을 시도하며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는 점에 주목,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문화유산 전승의 주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조 실 "일본 향토박물관의 지역문화 전시재현과 지역사회 참여 : 지바현 우라야스시향토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 논문의 우수성

본 논문은 일본 향토박물관이 지역사 재현과 지역민 참여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유지하고 문화유산을 전승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향토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이는 중앙 지향적 박물관과 달리 향토박물관이 지역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박물관 운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지역학교와의 협업, 학생 큐레이터 제도, 향토경진대회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 참여가 박물관 운영에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향토박물관의 정체성이 지역민 참여로 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유산 전승에 있어 박물관과 지역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드러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양 영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근대문화' 이미지 생산과 기억의 재구성"

- 논문의 우수성

이 연구는 식민지 시기의 이미지가 강한 근대건축물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대문화' 이미지의 생성과 소비를 분석함으로써 근대문화유산이 지닌 문화적 기억과 상징성이 어떻게 전유되고 재구성되는지를 탐구한 것이다. 논문은 먼저 근대문화유산의 이미지와 기억 재생산 과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시도한다. 근대문화유산 이미지가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닌 현재적 이해와 기억을 재구성하는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근대문화'를 경험하며 겪는 이중적이고 모순된 기억과 인식의 층위를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과거의 수탈과 억압의 기억이 현대적 소비의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혼재된 기억과 불안정한 개념으로 재구성되는 방식을 드러내고,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복합적이고 불안정한 인식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근대문화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소비되는 방식을 학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문화유산과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조 실 "생물문화다양성 보존을 위한 지역 자연사박물관의 역할과 방향 : 일본 가고시마현 사례를 중심으로"

- 논문의 우수성

이 논문은 일본 박물관법 개정이라는 맥락에서 자연사박물관이 생물문화다양성 보존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가고시마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본 연구는 자연사박물관의 시대적 변천과 사회적 책임 및 기능을 고찰하고 있으며 생물문화다양성 보존이라는 주제에서 자연사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 가능성을 학문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특히 가고시마가 가진 독특한 자연환경이 지역사회와 박물관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함으로써 지역의 자연 자원과 문화유산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자연사박물관이 단순히 지역의 자연유산을 전시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보존과 전승의 중심 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

는 방식을 탐구한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가고시마 지역 자연사박물관 사례를 통해 생물문화다양성 보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생물문화다양성 보존과 지역사회 협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 사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조 실 “색채를 활용한 일본 가고시마현 지역 활성화 사업의 전개와 의미”

- 논문의 우수성

해당 연구성과는 신진연구인력이 참여대학원생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한 것이다. 이 논문은 일본 가고시마현이 지역의 상징색으로 검은색을 내세워 문화자원을 상품화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먼저 일본에서 검은색이 전통적으로 긍정적 의미를 지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고시마가 이를 지역 상징색으로 삼은 배경과 과정을 살피며 색채가 지역정체성 형성과 자원화 과정에서 어떤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지를 심층적으로 규명한다. 또한 이 논문은 ‘가고시마는 블랙’ 캠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색채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의 다각적 측면을 조명하는데 이를 통해 특정 색채가 지역의 개성과 차별성을 부각하거나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한편 본 연구는 지역사회(産), 행정(官), 학계(學)가 협력하여 지역 상징색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산관학 협력의 구체적 성과와 과제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 정책에서 산관학 협력의 중요성과 실천적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저서 실적

성명	출판정보				저자수
	서적명	ISBN 발간등록번호	출판일	출판사	
조 실 양 영	일본 가고시마 지역연구 문화유산과 지역 활성화	979-11-94198-21-5	2024.08.30	신아출판사	11명

□ 조 실, 양 |영 외 9인(공저), 『일본 가고시마 지역연구 문화유산과 지역 활성화』

- 저서의 우수성

본 총서는 국제협력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협력 관계를 맺은 가고시마대학교와 본 교육연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책으로 학문적 교류와 현지 조사의 실천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저서는 지역 간 문화유산 및 지역활성화 연구의 국제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총서작업을 통해 지역 간 교류를 바탕으로 참여대학원생들의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고 문화유산 활용과 지역 활성화에 관한 글로벌 관점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저서가 갖는 우수성 중 하나는 모든 필진이 가고시마 지역 현지 조사를 통해 얻은 구체적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 문화유산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론과 현장이 만나는 중요한 지점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과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3) 학술대회 발표 실적

성 명	학술회의명	개최기간	주관 기관	발표논문	발표자 수
조 실	지역학과 지방문화원의 미래	2023.10.20-21.	한국지역문화학회	일본 향토박물관의 지역문화 전시재현과 지역사회 참여 양상	단독
조 실	실행중인 인류학	2023.11.10~11	한국문화인류학회	'마을박물관'을 바라보는 이중적 관점 : ICOM의 '박물관 정의'와 한국「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사이에서	단독
잉 영외 1명	문화도시와 문화콘텐츠	2024.3.22.-23	문화콘텐츠학회 연합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가고시마현 매장문화재를 중심으로	2명
잉 영외 1명	문화도시와 문화콘텐츠	2024.3.22.-23	문화콘텐츠학회 연합	'일본유산(Japan Heritage)'의 문화 콘텐츠 활용과 체험 양상 -가고시마성(鹿児島城)을 중심으로-	2명
잉 영외 1명	지역문화의 다양성·고유성	2023.5.24.-25	한국지역문화학회	섬진강 구석기유적 문화층의 성격	2명
조 실	구술사와 도시재생	2024.07.19-20	한국구술사학회	군산 도시재생 프로젝트 구술 기록과 활용	단독

□ 조 실 "'마을박물관'을 바라보는 이중적 관점: ICOM의 '박물관 정의'와 한국「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사이에서 "

- 발표의 우수성

본 발표는 한국형 마을박물관의 특성과 국제박물관 정의 변화 사이에서의 이중적 관점을 탐구하고 있으며 특히 ICOM의 박물관 정의와 한국 박물관법의 차이를 분석한다. 또한 한국의 마을박물관이 공동체박물관과 포스트-박물관적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대한 법적·제도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COM의 박물관 정의는 1946년부터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2022년, 다양성과 포괄성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새로운 정의가 채택되었다. 해당 발표문은 박물관 정의의 변화가 박물관들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음을 밝히고 마을박물관이 이 같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본 발표에서 연구자는 한국형 마을박물관이 ICOM의 박물관 정의 및 포스트박물관과 공동체박물관 개념을 통해 어떤 발전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나아가 박물관이 단순히 보존과 전시의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과 참여적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마을박물관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문화적 기억을 보존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국내 박물관법과 정책이 이 같은 새로운 박물관 모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 조 실 "일본 향토박물관의 지역문화 전시재현과 지역사회 참여 양상"

- 발표의 우수성

본 발표의 의의는 일본 향토박물관을 통해 지역사 재현과 지역민 참여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통해 박물관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한 점에 있다. 일본 향토박물관은 지방역사와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며 지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우라야스시향토박물관은 지역학교와의 협업을 통한 박학연계 교육과 학생큐레이터 제도 그리고 향토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참여의 장을 통해 지역민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

를 전시 콘텐츠로 변환하여 박물관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아낸다. 해당 발표문은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역할 수행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 조 `실 “군산 도시재생 프로젝트 구술 기록과 활용”
- 발표의 우수성
본 학술발표는 군산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 구술 기록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과정의 주민 경험과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망한 발표자의 실천적 경험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자들이 경험한 갈등, 협력, 변화를 구술채록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이는 기존 도시재생 연구 방식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해당 발표는 군산 지역주민들의 경험과 기억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이 단순한 공간 재구성을 넘어서 공동체 의식과 문화적 보존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군산의 도시재생을 구술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며 기존 도시재생 이론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주민 참여’와 ‘문화적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시재생 이론에 새로운 시각을 추가하고 이론적 차원에서 도시재생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지역사회와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도시재생의 이론적, 실천적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5. 교육의 국제화 전략

가.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1) 외국대학과의 인적 교류

□ 일본 가고시마 대학교와 국제협력교육프로그램
- 일본 가고시마 대학교와 국제협력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해외공동연구, 해외공동저서 발간
- 해외 대학과의 공동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연구 방법론을 경험하고, 연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공동연구는 해외공동저서 발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함
- 공동저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자의 관점과 이론을 융합할 수 있음. 따라서 폭넓은 연구결과의 도출과 연구의 질이 향상됨

□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인적 교류 및 공동연구 가능성 확대
- 본 연구단은 전북대 쌀·삶·문명연구원과 국제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음. 향후 동아시아 및 한국의 문화, 정치, 사회의 변화상과 그 기저에 움직이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 등을 각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공유할 계획임. 이러한 국제학술대회를 발판으로 연구 교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2)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 본 교육연구단은 4차년도(2학기), 5차년도(1학기) 동안 우수 외국인 학생을 다수 유치하였음. 현황은 아래와 같음

성명	참여기간	출신국가/출신대학	연구주제
진	2024.03.01.-현재	중국/전북대학교	전주 지역 화인 연구
왕	2021.03.01.-현재	중국/서북사범대학교	한국과 중국의 고대 고고학 연구
호	2023.09.01.-현재	베트남/전북대학교	베트남 전통 음식문화 연구

<졸업생 배출>

성명	참여기간	출신국가/출신대학	연구주제
후 중	2021.09 - 2023.08	중국/전북대학교	한국과 중국 와당 비교 연구
어 코	2022.09 - 2024.08	헝가리/엘테대학교	헝가리 한국문화 전파 양상 연구

<박사과정 수료 배출>

성명	참여기간	출신국가/출신대학	연구주제
야 타 케	2020.09 - 2023.02	일본/가고시마대학교	한국의 군사문화 -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4차년도 2학기인 2024년 9월, 인류학 박사과정생으로 진개(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석사졸업)학생이 입학

□ 벨기에, 미국, 일본, 호주로부터의 유학생 수용 계획

3) 향후 국제화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인프라 강화 계획

□ 해외 교육,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한 연구 교류확대

- 2024년도 해외 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대상지로 계획 중인 일본 나가사키 지역의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과 박물관과 전시에 관련된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MOU 체결을 계획

□ 해외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융합적 사고 증진

□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 및 세션 조직

- 2025년 미국인류학회(2025 Annual Meeting for the Association of American Anthropologists)에서 관련 주제를 논하는 세션을 주도적으로 조직할 예정

□ 공동 저술 활동 장려: 가고시마 총서와 같이 타 국가 연구자와의 공동 연구를 장려

□ 참여교수 전문 분야 및 출신 학교의 국가에서 진행하는 국제 학술대회 참여 장려

- 참여대학원생의 해외 학술대회 참여를 독려하여 IUAES(International Union of Anthropological and Ethnological Sciences), SEAA(Society for East Asian Archaeology), EAAA(East Asia Anthropology Association) 등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여 학술논문 발표 예정

-- 이를 위해 영어 프레젠테이션 및 영어 논문 작성 지도 강화

□ 벨기에, 미국, 일본, 호주 유학생 대학원 입학을 위한 면담 진행 중

Ⅲ 연구역량 영역

□ 연구역량 대표 우수성과

1. 참여교수 연구역량

1.1 연구비 수주 실적

<표 3-1> 자체평가 대상기간(2023.9.1.(2024.3.1.)-2024.8.31.)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항 목	수주액(천원)		
	3년간(2020.9.1.~203.8.31.) 실적	최근 1년간 (2023.9.1.(2024.3.1.)~2024.8.31.) 실적	비고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530,761.046	221,029.919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20,362.5	24,500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 입금액	0	0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68,890	30,691	
참여교수 수	8	8	

□ 정부 및 산업체 연구비 수주 내역(최근 1년) (단위: 천원)

연번	주관부처	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참여교수 성명	연구기간 (YYYYMMDD)		형태	총연구비 (천원)	사업참여교수지분(%)	참여교수지분액 (천원)
						시작	종료				
1	완주군	연구용역 (지자체)	완주 마한역사문화권 주요유적 기록화 용역	김 옥	김 옥	20240701	20250112	단독과제	18,600	100%	18,600
2	전북대	교내연구비지원사업(학술트랙)	마한 분구묘의 기원과 성립시점	김 옥	김 옥	20230301	20240228	단독과제	17,000	100%	17,000
3	전북대	교내연구비지원사업(학술트랙)	전북 서부지역 백제 횡혈식석실분의 전개 과정	김 중	김 중	20230301	20240228	단독과제	17,000	100%	17,000
4	정읍시청	인문도시 지원사업	(시비대응) 오향(五香)이 살아 숨 쉬는 인문도시 정읍	조 연	조 연	2024001	20240630	단독과제	10,000	100%	10,000
5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 지원사업	오향(五香)이 살아 숨 쉬는 인문도시 정읍	조 연	조 연	20230701	20240630	단독과제	147,789.595	20%	29,557.919

6	정읍시청	인문도시 지원사업	(시비대응) 오향(五香)이 살아 숨 쉬는 인문도시 정읍	조 연	조 연	20230601	20231231	단독과제	20,000	100%	20,000
7	전북대	교내연구비지원사업(일반트랙)	영국 역사교과서의 내용 분석 - 〈주요단계 2〉의 고고학 자료 서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조 연	조 연	20230301	20240228	단독과제	9,500	100%	9,500
8	한국연구재단	저술출판 지원사업	사람과 사람의 주먹도끼	이 우	이 우	20240501	20250430	단독과제	10,000	100%	10,000
9	한국연구재단	저술출판 지원사업	사람과 사람의 주먹도끼	이 우	이 우	20230501	20240430	단독과제	10,000	100%	10,000
10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인문학연구지원사업	17세기 이후 전근대 조선과 일본의 출판과 사회사상 형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근대국민국가의 토대에 관한 새로운 모색	임 택	임 택	20241001	20250831	단독과제	12,000	100%	12,000
11	재단법인 전북연구원	연구용역(지자체)	전북학연구센터 '찾아가는 전북학' 교육사업 위탁	임 택	임 택	20240708	20241220	단독과제	5,000	100%	5,000
12	전북대	교내연구비지원사업(학술트랙)	문화자원으로서의 지역의 기록--쿠니라는 영역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사례분석	임 택	임 택	20230301	20240228	단독과제	11,900	100%	11,900
13	전북대	교내연구비지원사업(일반트랙)	문화인류학 문야의 연구	전 령	전 령	20230301	20240228	단독과제	9,500	100%	9,500
14	전북대	연구교수연구비지원사업	한국의 유기동물 보호 실천과 담론연구	전 령	전 령	20230301	20240229	단독과제	5,000	100%	5,000
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용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진 숙	진 숙	20230801	20231211	단독과제	15,000	50%	7,500
16	전북대	교내연구비지원사업(학술트랙)	제한된 해방: 개신교 초기 둔덕이씨 종부 김학정의 개종경험 분석	진 숙	진 숙	20230301	20240228	단독과제	17,000	100%	17,000
17	전북대학교	글로컬대학_2024	전북의 생물문화다양성과 전통생태지식: 전통, 생태, 관광을 결합한 전북의 특구모델(BCD 특구모델) 개발	이 묵	이 묵	20240601	20241231	단독과제	15,000	100%	15,000

18	전북대	교내연구비지원사업(학술트랙)	이슬람 자기계발과 자조의 논리: 무슬림 자기계발서와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서의 비교 분석	이 묵	이 묵	20230301	20240228	단독과제	11,900	100%	11,900

나. 연구업적물

1). 참여교수 연구 업적물의 우수성

가) KCI 논문게재

성명	논문제목	게재정보			저자수
		게재학술지명 (출판사, 학회명)	권(호)	발행일	
진 숙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적 기념사업의 역설과 지역화의 방향 - 전북 사례 -	한국자치행정학보	37(3)	2023.09.30.	2인
전 령	유기견 쉼터에서의 불연속적이고 파편적인 마주침들: '다종의 윤리'로 귀착되지 않는 비판적 에스노그래피를 위한 소고	한국문화인류학	56(3)	2023.12.31	단독
조 연	영국 역사교과서의 고고학 자료 서술 특징과 시사점: <주요단계 2>의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124(124)	2024.05	단독
김 중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6호분과 가야, 백제 및 신라	한국고고학보	2024(2)	2024.06	단독

□ 진 숙,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적 기념 사업의 역설과 지역화의 방향 - 전북 사례 -"

- 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의 제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의 지역화를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춘 논문이다. 연구자는 국가 기념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특정 장소와 사건에 대표성과 우월성이 부여됨으로써 기억의 정치가 독점화되고 지역이 주변화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가 주도 기념 사업이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거리감을 발생시키고 다양한 지역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경험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재현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라북도를 사례로 하여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와 평가를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지역화된 기념 사업이 지역 주민의 역사적 경험을 존중하고 국가 기념 사업과 균형을 이루어 지역사회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다양한 지역 목소리가 기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는 민주화운동 기억의 지역화가 기억의 독점화를 방지하고 더 다양한 사회적 기억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기념 사업이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주도 역사 기억 제도화가 지닌 한계를 진단하고 기억의 정치가 지역 차원에서 재구성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간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이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 전 령, “유기견 쉼터에서의 불연속적이고 파편적인 마주침들: ‘다종의 윤리’로 귀착되지 않는 비판적 에스노그래피를 위한 소고”

- 논문의 우수성

이 글은 기후 위기 시대에 인간-비인간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흐름 속에서 인간-비인간 관계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이 문화적, 정치경제적 이슈의 비가시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시작된 연구이다. 인간-비인간, 다종 관계가 새로운 ‘다종의 윤리’로 귀결되면서 인간의 사회적, 역사적 문제인 차이, 불평등, 착취와 같은 주제들이 탈각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연구는 인간-동물 관계에 주목하면서도 단순한 다종 생태윤리로 한정하지 않고 자본주의, 가부장제와 같은 거시적 구조 속에서 인간-비인간 관계의 상호연결성을 재조명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한 유기견 쉼터에서의 ‘불연속적이고 파편적인’ 마주침들을 에스노그래피적으로 탐구하며 쉼터 스탭들이 수행하는 종간 돌봄의 이중적 의미를 분석했다. 이 돌봄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적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틀에 온전히 포섭되지 않는 감응적 관계의 양상을 보임으로써 인간-비인간 관계의 복합적 의미를 드러낸다. 이러한 관계를 ‘차이와 불평등의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으로 조명하여, 인간과 비인간 간의 관계가 단순히 공존이나 생태적 공진화를 넘어 인간 사회 내의 권력 구조와 상호구성적임을 강조한다. 해당 논문은 다종 윤리와 인간-비인간 관계의 물화 가능성을 비판하며 비판적 에스노그래피가 기후 위기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다종 관계의 논의를 더욱 깊이 있는 사회적, 정치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다종 관계와 불평등, 차이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인류학이 인간 중심적 시각을 넘어서면서도 자본과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 조 연, “영국 역사교과서의 고고학 자료 서술 특징과 시사점: <주요단계 2>의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 논문의 우수성

본 논문은 영국 역사교과서 고고학 자료의 서술 방식과 그 특징을 분석하여 영국 역사교육에서 고고학 자료가 초등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조명한 연구이다. 영국은 1988년부터 국가교육과정 제도를 시행하여 중앙정부가 역사교육의 주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으며 특히 2014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주요단계 2(Key Stage 2)’에서 선사시대, 로만브리튼 시대, 앵글로색슨족, 바이킹 시대 등 다양한 고고학 자료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점이 주목된다. 필자는 영국 교과서 출판사 CGPbook의 ‘KS2 History’ 시리즈 4권을 선정하여 고고학 자료가 어떻게 제시되고 설명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 역사교육에서는 고고학 자료를 활용해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과 유물을 직접 접하도록 유도하며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는 영국과 유럽의 다양한 고고학적 유물을 효과적으로 교육 콘텐츠에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영국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주로 근현대사를 다루기 때문에 고고학 자료의 서술 비중이 줄어드는 한계도 발견했다. 본 연구는 영국 역사교과서의 고고학 서술 양상이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역사교과서와 뚜렷하게 차별화됨을 드러내며 영국의 역사교육 방식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또한 영국 역사교과서에서 다양한 고고학 자료가 적절히 활용되는 방식은 고고학의 대중화와 청소년 교육 콘텐츠로의 활용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한국 고고학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김 중,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6호분과 가야, 백제 및 신라”

- 논문의 우수성

본 논문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6호분의 봉분, 석실, 부장품 등 세부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대가야, 백제, 신라의 횡혈식 석실분과 비교하여 계보와 축조 주체, 시기를 추론함으로써 36호분 석실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한 학술적 성과를 지닌다. 특히 36호분이 백제, 대가야, 신라라는 주요 정치 세력의 경계 혹은 완충지대에 위치함을 근거로 이 지역사회가 당시 정치적 세력 간의 긴장 속에서 어떻게 동향을 보였는지 사례로 다루었다. 36호분 석실은 대가야 유형 석실의 특징을 지니며 합천 저포리와 산청 생초의 석실과 유사한 형식으로 평가된다. 이 석실은 백제의 영향으로 궁륭형 천장을 가지게 되었으나, 백제 중앙의 직접적 개입 아래 축조된 것은 아니다. 이는 36호분 축조 시기인 백제사비기 전반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확인되며 대가야의 지역적 축조 전통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해된다. 유곡리 36호분의 부장품으로 발견된 6세기 말 신라의 대금구는 이 일대가 신라에 점유된 이후에 추가 매장된 인물의 소장품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신라가 운봉 고원 지역을 군사적 요충지로 인식하고 지배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운봉 고원 일대에서 신라 석실이나 석곽이 일부 조성되었으나 군집 분묘가 확인되지 않은 점은 신라와 백제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이 지역이 7세기 이후 안정적으로 어느 한 세력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유곡리 36호분이 대가야, 백제, 신라 세력의 경계 지대에 위치한 고분으로서 각 세력의 영향이 혼재된 지역적 특수성과 자율적 양식 선택을 보여주며 신라와 백제 간의 정치적 긴장 속에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운봉 고원의 역사적 상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나) 저서 출판

성명	출판정보				저자수
	서적명	ISBN 발간등록번호	출판일	출판사	
김 옥	마한 분구묘의 표상: 완주 상운리 유적	9791196572037(03090)	2023.10.25	학연문화사	단독
김 중 김 옥	마한문화의 이해	978-89-299-3006-6 93910	2023.11.30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17명
임 택	전통 관개지식과 수리문화	9788929930257	2023.12.15.	국립무형유산원	9명
진 숙	전라권 도시, 농촌, 어촌의 다문화 커뮤니티와 사람들	978-89-289-0373-3	2023.12.20	민속원	3명
김 옥	마한 분구묘의 이해	9788955086935	2024.05.27	학연문화사	단독

□ 김 옥 『마한 분구묘의 표상: 완주 상운리 유적』 김 옥

- 저서의 우수성

본 저서는 전라북도 완주군 상운리 유적의 구체적 발굴 자료를 바탕으로 마한 시대의 분구묘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다. 특히 유적의 세부 사항에 주목하여 당시 사람들의 의식세계와 사회 구조를 규명하는 데 탁원한 고고학적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분구묘의 구조적 특징, 유물의 의미, 그리고 묘제의 변화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은 고고한 연구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분구묘가 가진 상징성과 그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마한 사회의 계층화, 장례문화,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사회적 특성을 체

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마한 연구에서 주로 문헌자료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고고학적 실증 자료에 기반하여 마한 시대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이는 마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며 기존의 연구 성과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마한의 유적과 문화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은 분야였으나 전라북도 완주 상운리 유적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가 가진 고고학의 학문적 의미를 재조명하하고 지역적 다양성과 구체성을 드러내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 『마한문화의 이해』김 중,김 옥

- 저서의 우수성

본 저서는 마한이라는 고대 국가에 대한 학문적 재조명을 시도한 중요한 작업이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는 마한문화의 출현을 청동기와 철기 등 고고학적 유물자료가 전북지역에서 다수 발견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사업을 펼쳐왔다. 전북지역을 마한 문화 성립기와 발전기로 크게 구분하여 주거지, 분묘 등 최신 조사현황을 집성하였는데, 이번 마한문화에 대한 학술총서는 마한문화권 전반으로 연구범위를 확장시켜 주요 유적과 유물을 통해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마한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의 특징적 요소들은 사진자료와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일반인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마한문화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유적에 깃든 흐름, 유물에 깃든 특별함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로 마한문화권에 관한 전개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한 유물로 토기, 철기, 구슬에 주목하여 마한문화의 특수성을 살펴보고 있다. 김 중 교수와 김 옥 교수는 고고학과 역사학을 아우르는 융합적 접근을 통해 마한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측면을 입체적으로 해석하며, 고대 마한 사회의 복잡한 구조와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 임 택 『전통 관개 지식과 수리문화』

- 저서의 우수성

본 저서는 국립무형유산원 주최로 진행한 조사연구 성과물로, 농사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관개 지식과 수리 문화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것이다. 한국 전통 농경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저서에는 논에 물을 대는 전통적 관개 방식이 단순한 기술적 지식에 그치지 않고 지형과 기후를 비롯한 환경적 지식, 공동체의 사회적 조직과 의례 등 물질적·비물질적 유산들이 결합된 복합적인 문화임이 드러나 있다. 또한 전통 관개지식과 수리 공동체의 사회적·문화적 특징을 상세히 기술하고 보와 저수지의 관개 방식, 소규모 저수시설과 간척 논 운영 방식을 다룸으로써 관개 지식이 물리적 유산과 무형의 공동체 문화로서 전승되어 온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한국 전통 수리 문화가 단순한 농업 기술을 넘어서 공동체 내의 사회적 유대와 생태적 지식의 융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전통 농경사회의 특성과 공동체적 가치가 관개 지식을 통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탐구한다. 한편 관개 지식과 수리 문화가 가진 유·무형 유산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한국 농경문화의 지속가능성과 전통적 농업 방식의 현대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전통 농업의 다층적 가치와 전통 지식이 현대 사회에서 재평가될 수 있는 학술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진 숙 『전라권 도시, 농촌, 어촌의 다문화 커뮤니티와 사람들』

- 저서의 우수성

이 저서는 21세기의 가속화된 이주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한국, 특히 호남지역 농촌과 어촌의 다문화 현상을 탐구한 연구로서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필자들은 호남 지역의 사회적, 지리적 특수성 속에서 다문화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한국 농어촌 지역이 경험하는 다문화 문제와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사회 전반에서

이주민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필진은 호남의 농촌과 어촌을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를 통해 다문화 현상이 단순히 도시 지역에 국한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지역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다문화가 도시 중심의 담론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 농어촌과 같은 전통적 지역사회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서는 한국 사회의 내재된 인종차별적 요소와 다문화 사회로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명하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적 환경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문화적 방향성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 현상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의 공존 방안을 실질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다문화 이슈에 대해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를 제시한 중요한 학술적 작업으로 다문화 사회로서 한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정책적 기반 마련에 일조할 수 있다.

□ 김·옥 『마한 분구묘의 이해』

- 저서의 우수성

해당 저서는 대한민국 역사 속 마한의 정체성과 그 역사적 위치를 규명하고자 한 중요한 연구로 특히 마한 분구묘를 통해 마한 문화의 실체와 특성을 총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한 점에서 학문적 우수성과 의의를 지닌다. 저자는 마한이 백제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 문화와 역사적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며 마한이 지닌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을 뷰카(VUCA)라는 개념을 통해 접근한다. 이러한 분석은 고대 역사 속 마한의 다층적이고 변화무쌍한 면모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며 한국 고대사의 다면적인 성격을 조명하는 데 기여한다. 이 저서는 마한의 대표적 묘제인 분구묘를 “블랙박스”에 비유하며 마한의 숨결과 혼이 담긴 주요 역사적 표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마한의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 학문적 접근으로 독자가 마한을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문화적, 인문학적 의미로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저자는 이 책이 마한의 종합적 완결판이 아니라 마한의 실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작은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마한 문화와 한국 고대사를 이해하는 학문적 여정의 출발점이 되고자 하는 의의를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저서는 마한 분구묘 연구를 넘어 한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밑거름을 제공하며 마한을 중심으로 한 한국 고대사의 연구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가.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대표 실적

연번	실적명	참여 교수명	실적 해당 분야	실적 요약
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세부 계획 수립 연구	임 택	정책 기여 지역 특화 학문의 개방화/대중화	본 사업은 임 택 교수가 국립디자인 박물관 개관을 대비해 디자인 자료현황과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소장품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 글로벌 디자인 동향과 관련 법률을 반영하여 국제적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산업사회에 기여함. 디자인의 창의적 가치를 확산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 박물관의 사회적 가치창출과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추구함

2	인문도시 지원사업 '오향(五香)이 살아 숨 쉬는 인문도시 정읍'	조 연	정책 기여 지역 특화 학문의 개방화/대중화	본 사업은 조 연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전북대 인문학연구소가 정읍시와 공동으로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주관 '2021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것임. 정읍지역민의 인문학적 소양증진과 지역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성화에도 기여. 인문학을 대중화하고 개방화하여 지역특화 된 학문적 가치를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3	완주 마한역사문화권 주요유적 기록화 용역	김 옥	지역 특화 정책 기여 학문의 개방화/대중화	본 사업은 김 옥 교수가 완주군과 함께 전라북도 역사와 마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이는 전라북도 및 국가 차원의 고대 유물 보존 및 철기 문화 연구 지원에 필요한 정책적 기반 자료와 연구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에 크게 기여함. 또한 유적의 복원은 전라북도 지역 고유의 특색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조명받을 수 있는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지역문화에 특화된 역사, 문와 연구의 중요성 강화, 지역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킴
4	전라북도 인권역사현장 발굴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연구	진 숙	미래/글로벌 대응 정책 기여 지역 특화	진 숙 교수가 책임을 맡고 있는 연구로 전북 인권 역사현장을 체계적으로 발굴, 조사하여 글로벌 차원의 인권 의심 함양과 다크투어리즘 기반을 구축하는 기회를 제공. 이 연구는 지역에 특화된 인권 교육 및 관광자원를 개발하고 인권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 지역 단위에서 실천 가능한 인권 실천 전략 수립을 지원함
5	일본 가고시마 대학과 국제 협력 교육프로그램	임 택	거버넌스 구축 미래/글로벌 대응 지역 특화	본 사업은 임 택 교수가 일본 가고시마 대학교와 함께 지역 연구 및 국제적 학문 교류를 진행한 국제협력프로그램임. 참여교수가 지닌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결하여 다자간 협력 기반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함. 해외 대학들과 함께 현장연구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세계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이를 실천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연구지식과 경험을 축적
6	전북의 생물문화다양성과 전통생태	이 묵	미래/글로벌 대응 정책 기여 지역 특화	전북대학교와 전북연구원이 협력 해 진행하는 연구사업으로 지역의 국립거점대학과 지역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강화 지원을 통한 융합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자 함. 생물학적, 문화적 다양성을 보유한 전북지역은 광범위한 생태자원을 지닌 지역으로 축적된 관광자원에 대한 자료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생물문화다양성 특구의 정책 방안과 과제를 제안함

7	전북학연구센터 ‘찾아가는 전북학’ 교육사업	임 택	학문의 개방화/대중화 지역 특화 정책 기여	본 사업은 임 택 교수가 전북학연구센터와 함께 하는 교육사업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전라북도 지역민의 현안과 상식, 지역민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지역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함. 전북학 관련 정규강좌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학의 학문적 깊이를 넓히고 대중적 인식을 확산히켜 학문개방화를 촉진하고자 함. 지역 특화된 학문적 자원을 활용하여 전북학의 지속 가능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교육사업을 통해 사회적, 정책적 기여를 확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
8	17세기 이후 전근대 조선과 일본의 출판과 사회사상 형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임 택	미래/글로벌 대응 학문의 개방화/대중화 지역 특화	본 사업은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인문학 연구지원사업으로 임 택 교수는 동아시아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치, 사회 간의 관계를 세계사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정치적 변화를 분석함. 특히 ‘독서공동체’에 주목해 출판 역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학문적 연구를 진행. 전통과 현대의 문화적, 지적 연계를 탐구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고유한 지적 전통을 특화된 학문적 관점에서 재조명

3. 참여교수 연구의 국제화 현황

가.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1) 국제학회 참여 및 학술강연 활동

가) 국제 학술대회 발표활동

학술회의명	개최기간	주관 기관	발표논문	성 명	발표자수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Azerbaijan-Korea-Turkiye-Georgia Scientific Cooperation on Archaeology	2024. 06.19. ~ 2024. 06.20	아제르바이잔 사회과학원 (ANAS)	A scientific study on the pottery distribution of the central and local regions of the Baekje Kingdom - focusing on Pungnap Fortress and the Hwacheon Woncheon-ri site.	조 연	단독

나.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국제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학문적 네트워크를 확장시킴

□ 국제적인 학술회의 및 세미나를 통해 연구자들간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의 지역사회의 사례들을 비교 연구함

□ 국제적인 학술대회와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지역의 연구를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참여교수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시적인 연구자 교류가 오가며, 해외

학자들과의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 성과 도출, 외국의 우수 대학들과 연수프로그램 조직, 그리고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양해각서(MOU/MOA) 체결 등을 계획하였음

□ 일본 지방 국립대학과의 공동연구 포럼 결성

1)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상호 교류 현황 및 실적

□ ‘한국 문화의 날 in 시즈오카’ 강연 진행

- 기　　간 : 2023. 10. 27. - 2023. 10. 30.
- 참여교수 : 임　택
- 참여기관 : 유네스코아태 무형유산센터, 일본 시즈오카 현청, 아타미시 시청, 동아시아 문화도시 시즈오카현 실행 위원회,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 내　　용 :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을 기념하며 한·일 교류 행사로서 ‘한국 문화의 날 in 시즈오카’이 계획되었다. 한국에서 전주 무형유산 공연 팀의 현지 파견, 음식 시연, 강연 진행 등을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국제문화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임　택 교수는 본 행사에서 전주 문화 특별강연을 진행하였다.

□ ‘한국 도시 노스탤지어의 표출과 문화유산의 창출’ 강연 진행

- 기　　간 : 2024. 02. 18. - 2024. 02. 23.
- 참여교수 : 진　숙
- 참여기관 : 도쿄대학교.
- 내　　용 : 본 교육 프로그램은 도쿄대학교 휴머니티 연구회에서 주최하였고, 아시아 여러 도시의 노스탤지어 양상을 비교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진　숙 교수는 한국 한옥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전주 한옥마을 관광화 과정의 향수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 ‘일본 지식인의 심성에 관한 연구’

- 기　　간 : 2024. 04. 03. - 2024. 04. 06
- 참여기관 :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 이와나미 출판사, 슈에이샤 출판사, 일본 출판인회관, 사이타마 대학
- 참여교수 : 임　택
- 내　　용 : 본 연구는 일본 지식인의 심성에 관한 현지 인터뷰 및 자료 조사를 요청받아 진행하였다. 동아시아 출판인회의에 참석하여 출판 관계자 및 지식인의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고, 지방 국립대학(사이타마 대학)과의 연계 모색을 위해 인문사회계연구 담당 교수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Azerbaijan-Korea-Turkiye-Georgia Scientific Cooperation on Archaeology’ 학술대회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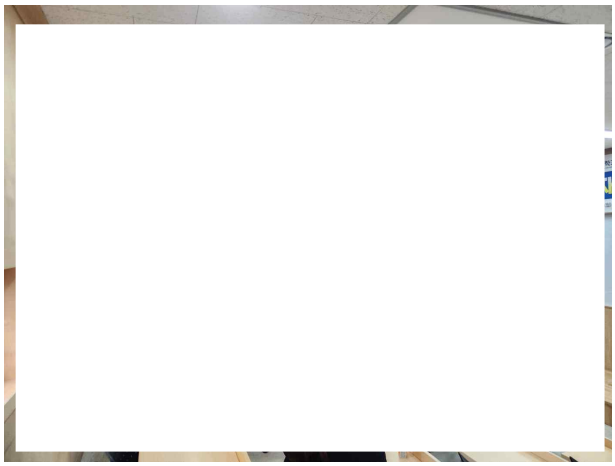
- 기　　간 : 2024. 06. 19 - 2024. 06. 20
- 참여교수 : 조　연
- 참여국가 : 대한민국,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 내　　용 : ‘A scientific study on the pottery distribution of the central and local regions of the Baekje Kingdom - focusing on Pungnap Fortress and the Hwacheon Woncheon-ri site.’의 연구는 ‘아제르바이잔, 한국, 튀르키에, 조지아 등 4개국의 각 고고학 분야의 연구자들

이 모여 과학협력을 논의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국내의 풍납토성 및 화천 원천리 유적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백제 왕국의 도자기 분포를 과학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백제문화의 지역적 특성과 중앙과 지방간의 문화적 교류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 ‘일본의 전통공예 화지(和紙) 문화 연구’
- 기　　간 : 2024. 08. 11 - 2024. 08. 15.
- 참여교수 : 임　택
- 참여기관 :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 미노와시 화지 갤러리, 미노와 수제 화지 협동조합, 아이치 현립 미술관
- 내　　용 : 본 연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일본의 화지에 관한 연구이다. 화지의 생산과정,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전승과정 전반의 연구를 쌀삶문명연구소의 요청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 교류 현황 및 실적

□ 일본 가고시마 대학교 학생들과의 학술 교류
- 임　택 교수는 일본 가고시마대학 법문학부 문화인류학전공 오자키 타카히로 교수와 19년 동안 정기적으로 교류 활동을 맺고 있음
- 2024년 8월 28일 - 9월 4일에 가고시마 대학교 학생들이 전북대학교에 방문하여 BK21 참여대학원생들과 학술 교류 활동을 함
- 가고시마 대학 문화인류학 전공 교수인 오　키 타　　로, 카　　로 이　에 및 가고시마 대학 학생들과 함께 학술세미나 및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음
- 본 교육단이 2023년도 2학기에 진행한 해외 교육연구 프로그램과 같이 해외 프로그램과 교류활동을 연계한다면 참여 학생에게 양질의 국제화 활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양 대학 학술 교류

3) 향후 추진 계획

□ 국제적 학술 네트워크의 확장 및 강화
- 다양한 국가와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을 적극적으로 구축. 기존의 교류활동을 토대로 더 많은 학술대회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향성 제시
- 국제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새로운 협력기회와 학술적 네트워크 확장을 강화하고자 함
- **일본의 지방국립대학과의 네트워크 및 포럼 결성**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재 11개교가 참여의사를 밝혀 2025년 상반기까지는 포럼이 결성될 것으로 전망함

□ 글로벌 연구 주제 발굴 및 발표
- 전세계적인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 연구 이슈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연구지도에 힘씀. 학술논문, 연구 보고서, 학술대회 발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분석 강화
- 학술지의 범위와 특성, 인용지수 등을 분석해 연구자가 주제에 맞는 학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제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 환경 구축
- 해외 대학과의 공동 연구하는 데 있어 교환프로그램이나 협력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글로벌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해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유적지 발굴 프로젝트를 찾아 단기프로그램이나 장기해외연수와 연결시켜 참여하도록 지원할 예정임
- 여러 국가의 연구자들이 내놓은 연구 성과들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온라인 학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문화적 다양성 교류를 통한 글로벌 연구 활성화
-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해 연구자들이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특히 문화유산, 지역 생태환경 등 지역 연구를 위한 문화적 교류 활성화
- 국제적인 전시회나 문화 행사와 연결된 연구활동을 통해 문화 교류를 학술적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연구 역량을 강화